

2000년 제1회

효녀심청 저그 청소년 예술공연  
모 인 국 인 공 인

그지기 부문 수상작  
리 사 부 인 수 상 자  
기



谷城文化院



2000년 제1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 글짓기 부문 수상작

## 차 례

▶ 이순원(초대작가) -----저 나무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럴까/11

### ※ 운문 부문 ※

#### 조 등 부

- ▶ 송현근(담양무정초등 3)-----야간열차/17
- ▶ 이보아(담양무정초등 3) ----- 바람/18
- ▶ 최영묵(담양무정초등 5) ----- 물고기의 친구/19
- ▶ 고우리(여수자산초등 6) ----- 누구일까/20
- ▶ 김이슬(곡성겸면초등 4) ----- 어머니의 손/21
- ▶ 탁은천(곡성서초등 5) ----- 주머니/22
- ▶ 최윤정(곡성겸면초등 마삼분교 6) ----- 밤하늘/23
- ▶ 이하나(곡성서초등 5) ----- 눈의 요정/24
- ▶ 윤 선(곡성창립초등 4) ----- 멧내는 나무/25



### 중등부

- ▶ 한소영(곡성옥과중 2) ----- 두 개의 촛불/26
- ▶ 김혜선(곡성여중 2) ----- 제비꽃/27

### 고등부

- ▶ 김우영(김해중앙여고 3) ----- 안개/28
- ▶ 조윤경(김해중앙여고 3) ----- 길/30
- ▶ 백경숙(장흥고 2) ----- 가슴속의 가을/31

## ※ 산문 부문 ※

### 초등부

- ▶ 송다은(여수자산초등 4) ---- 사람이 되고 싶은 땅달보 마네킨에게/35
- ▶ 신성미(구례중동초등 6) ----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부모님의 사랑/37
- ▶ 한선영(남원주생초등 6) ----- 잊을 수 없는 그날!/40
- ▶ 곽광휘(곡성서초등 3) ----- 효와 장군의 고장/43
- ▶ 문형진(곡성검면초등 6) ----- 버스안에서/46
- ▶ 서은애(곡성입면초등 5) ----- 내친구/47

### 중등부

- ▶ 장영신(남원금지중 1) ----- 너와 나의 우정/49



- ▶ 허난설(곡성옥과중 3) ----- 촛불 하나/54
- ▶ 정지영(곡성입면중 2) ----- 우리 가족의 “한바탕 웃음” 이야기/56
- ▶ 이하나(곡성여중 1) ----- 보람된 테마소풍/59
- ▶ 신연순(곡성여중 2) -----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를 읽고/62
- ▶ 배운성(곡성여중 2) ----- 자작나무를 닮은 친구/64
- ▶ 윤미애(곡성여중 2) ----- 회상/67
- ▶ 정애선(곡성여중 3) ----- 나의 사계/69
- ▶ 김규태(곡성중 2) ----- 효/72
- ▶ 오준환(곡성중 3) ----- 청소년과 효/74
- ▶ 김미화(곡성옥산중 3) ----- 나를 깨우쳐 준 심청이/77

## 고 등 부

- ▶ 김향남(김해중앙여고 1) ----- 눈이 부신날/80
- ▶ 이수진(김해중앙여고 2) ----- 조약돌/89
- ▶ 황금진(김해중앙여고 3) ----- 나만의 빛 바랜 단편영화/94
- ▶ 김혜정(곡성고 1) -----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한 마음/117
- ▶ 박미마(곡성고 1) ----- 가을이 되면/121
- ▶ 서지희(곡성고 2) ----- 내 삶 속의 작은 행복/124
- ▶ 김미연(곡성고 2) ----- 날개 잃은 천사의 세상보기/130
- ▶ 이지영(곡성고 2) ----- 아, 어머니/133
- ▶ 박소라(곡성고 3) ----- “엄마, 사랑해요”/136
- ▶ 한지연(광주경신여고 2) ----- 아버지/139



곡성문화원장 양 병 하

우리고장이 낳은 효녀 심청의 실존인물인 원홍장을 추모하고 청소년 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통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개최되었던 “제1회 효녀 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의 글짓기 부문 수상 작품집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수상작품집이 꿈과 이상을 키워나가는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효의 참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후대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성대하게 치러진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훌륭한 작품을 전국각지에서 고루 응모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12월

전라남도곡성교육청  
교육장 정 찬 종

우리 곡성문화원에서 개최한 제1회 효녀심청 전국청소년 예술 공모전 글짓기대회에 응모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은 학생 여러분께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펴고 가꿀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신 곡성문화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달겨레는 어린시절부터 효녀 심청과 열녀춘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과 효와 열의 정신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자랐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우리 가슴속에 흐르는 효녀 심청에 대한 향수는 더욱 간절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 속에 심청의 본향인 우리 곡성에서 심청을 기리고 추모하는 대회가 열리고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담은 수상집을 펴내게 된 것은 실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순자강과 동악산 골짜기를 흐르는 물처럼 평화롭고 깨끗한 주옥같은 글편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집을 많은 청소년들이 읽어 맑고 평화로운 정서가 깃들고 효의 정신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12월









## 저 나무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럴까

이순원 / 소설가

-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한무숙 문학상, 효석 문학상수상
-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은비령』 『말을 찾아서』 『그대 정동진에 가면』 『모델』 『아비의 잠』 등 다수

나무와 들풀 이야기 한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만산홍엽(萬山紅葉). 온 산에 붉은 단풍이라는 뜻이겠지요. 산에다가 보셨으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풍잎만 붉은게 아니랍니다.

정작 단풍보다 더 붉은 나무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중 가장 붉게 물드는게 불나무와 옷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뭇잎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줄기에서 나오는 진물도 비슷합니다.

산에 가면, 아니 산에 가서도 한해 들판의 농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봄에 목련은 꽃봉오리를 꼭 북쪽으로 향하여 꽃잎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직 꽃잎을 열지 않은 목련들을 보면 모든 꽃송이가 남이 있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목련처럼 산에 가면 꼭 산아래 들판을 향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도토리나무와 상수리나무지요. 다른 과일들은 들판의 벼농사나 밭농사와 비슷한 작황을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 들



판의 농사가 풍년을 이루면 과일 농사도 풍년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태풍이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바람에 과일들도 태반은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흉년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낱알이 귀하면 과일도 귀하다는 말이 있는 거구요.

그런데, 도토리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그 반대입니다.

어느젠가 어른들과 함께 산소에 추석 성묘를 갔을 때입니다.

“올해는 들에 풍년이 들었는데도 굴암이(도토리)이 아주 잘 열렸네”.

앞서 산에 올라가던 한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굴암이 왜요?”

“아니, 올해는 풍년인데도 굴암이 잘 열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옛부터 도토리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꼭 산 아래 들판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는데, 들판의 농사가 흉년이 들 것 같으면 도토리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은 봄과 여름사이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한 자리에 무심한 듯 서 있는 나무들조차 장차 다가올 여름 가뭄과 여름 태풍을 미리 짐작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나무들은 왜 흉년이 들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자연의 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말이지요. 올해는 흉년이 들 것 같은데 우리라도 더 많이 열매를 맺어 이 산의 이웃들을 먹여 살려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 산에 사는



온갖 새들과 온갖 짐승, 그리고 들에 내려와 사는 사람까지도 나무들은 그렇게 겨울양식을 걱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날, 시골에서 자라 저는 그 굴암밥을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람쥐들이 소풍갈 때 싸가는 점심 도시락이거나 도토리묵이나 해먹는 별식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물에 울귀뿔은내를 가시게 한 다음 곡식 대신 먹는 시골 사람들의 겨울 양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도토리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들판의 농사를 미리 짐작하고 올 한해동안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를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산식구들의 겨울 양식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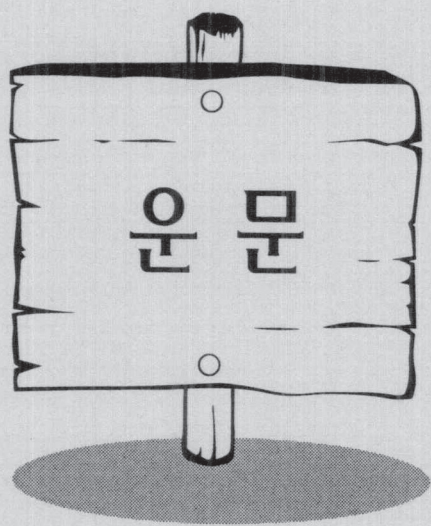
그런 나무들을 보면 가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워 질때가 있습니다. 산 속에서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나무들도 저렇게 이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토리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올해 산에 가서 도토리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열매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추석때 고향에 가면, 그래서 또 산소로 성묘를 가게 되면 그 나무들부터 살펴보게 되겠지요. 우리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어떤 들풀을 보거나 나무를 보게 되면 고작 저런 열매 하나를 맺으려고 한해 동안 그렇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웠나 싶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작은 풀이든 나무든 뜻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들풀과 나무뿌리들이 지난 홍수에 산을 붙들고 들을 붙들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삶의 지혜 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풀이나 나무들에게 그들이 한 평생을 살아갈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우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무와 들풀들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지요. 다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도 모르고, 또 알아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올해도 온 산의 상수리나무들이 자기가 맺은 열매로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나무들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자연의 작은 질서를 아는 게 세상 이치를 아는 일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 야간 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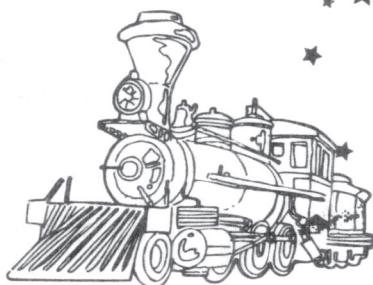
담양무정초등학교  
3학년 송현근

야간 열차는 우주선 열차  
밤하늘이 땅위로 내려왔어요.

깜깜한 밤인데도 밖을 보면  
하늘에 별들이 땅위에 쏟아졌어요.

도시에는 수 없이 많이 반짝이고  
농촌에는 띄엄띄엄 반짝이어요.

야간 열차를 타면 하늘이 내려앉아요.  
야간 열차는 땅위에 별만 보여요.





## 바람

담양무정동초등학교  
3학년 이보아



바람은 슈경인가봐  
모습도 들어내지 않고  
물래 스쳐 지나 가니까.

바람은 육상 선수인가 봐  
모습도 들어내지 않고  
벌써 내 앞을 왔다 가니까

바람은 좋은 친구  
여름이면 시원하고  
가을이면 예쁜 낙엽  
한 아름 갖다 주니까

바람은 좋은 친구  
내가 좋고 네가 좋고,  
모두모두 친구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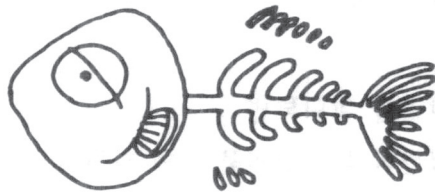
# 물고기의 친구

담양무정동초등학교  
5학년 최영묵

넛물이 출렁이며  
졸 졸 졸  
노래를 부른다.

물고기도 덩달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춤을 춘다.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는  
넛물과 물고기.



혼자서 못 사는  
물고기의 친구는 넛물,  
넛물의 친구는 물고기.

넛물과 물고기는  
언제나 친한 친구들  
매일 마주 보고 산다.



## 누구일까

여수자산초등학교  
6학년 고우리

들길을 걷다보면  
도랑가로 달개비꽃 피어 있지요.  
달개비꽃 볼때마다  
달개비란 이름 맨 처음 붙인사람  
궁금하지요.

누구일까

산길을 걷다보면  
길곶으로 패랭이꽃 피어 있지요.  
패랭이꽃 볼때마다  
패랭이란 이름 맨 처음 붙인 사람  
궁금하지요

누구일까





# 어머니의 손

극성검면초등학교 마심분교

4학년 김이슬

거칠고  
깨끗깨끗한  
어머니의 손

화장도 안하고  
양념 냄새 나는  
어머니의 손

차갑기만 하고  
까무잡잡한  
어머니의 손



하지만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미운 손이 아니야

나를 위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사랑의 손  
어머니의 손.



## 주머니

곡성서초등학교  
5학년1반 탁은천

봄에는 새싹들의 합창  
주머니에 주워담고,

여름에는 풀벌레소리  
주머니에 주워담고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  
주머니에 주워담고

겨울에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  
주머니에 주워담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리가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인다.



# 밤하늘

극성검면초등학교 마삼분교  
6학년 최윤정

은하수 그려진  
저 높은  
밤하늘.

아름다운  
강가에 놀러온  
가족 별들

누가 누가 있을까?

물장구 치며  
놀고 있는  
다정한 동생 별들

뼉뼉뼉  
잔소리꾼 저 별은  
엄마 별.

키가 큰  
저 별은.  
내별

대신  
뚝자리 되어주는  
저 달은  
아버지 별





## 눈 의 요 정

극성서초등학교  
5학년 이하나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만져 수북히 쌓인 눈



개 요정들이 색깔이 미워  
하얗게  
하얗게  
쌓이게 하얗



사람들이 추워하며  
다니기  
하얗게 위 - - -



요정들은 기뻐하며  
더욱 더  
평평 내리게 한다

이 색깔이 평온한 가운데  
색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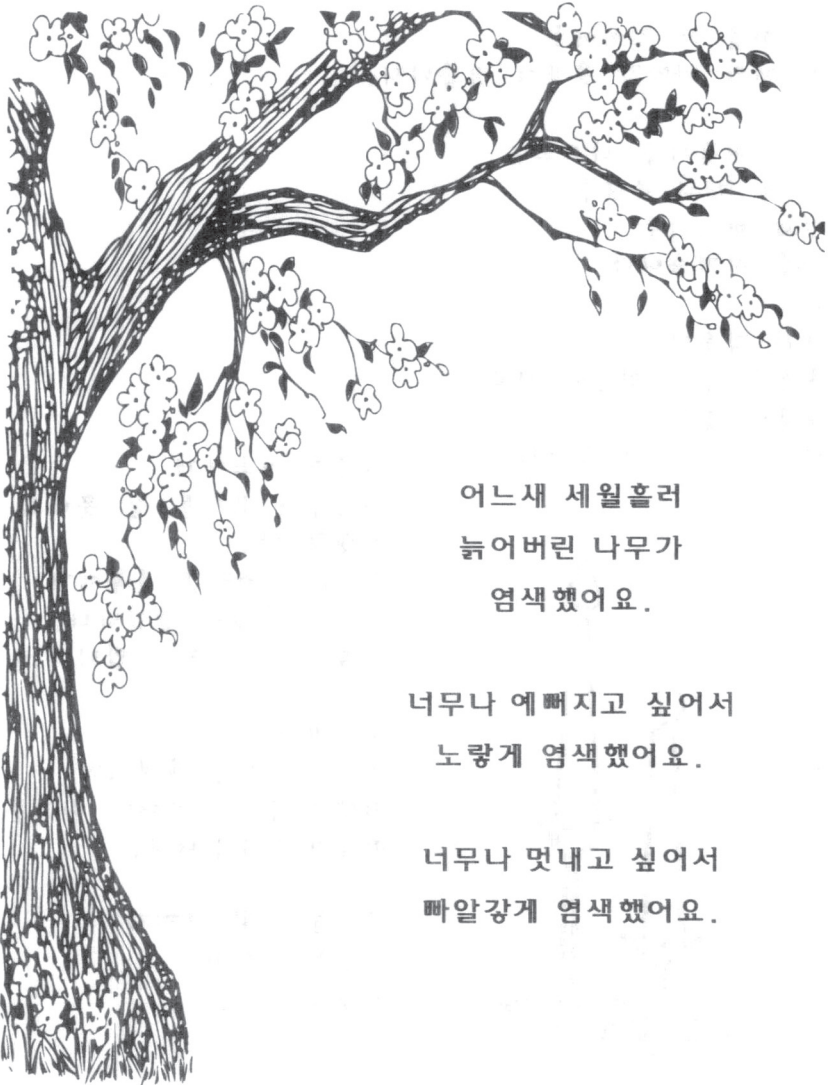
하얗게 눈의 나라가 되어 있다





# 멋내는 나무

극성창립초등학교  
4학년 윤선



어느새 세월 흘러  
늘어버린 나무가  
염색했어요.

너무나 예뻐지고 싶어서  
노랗게 염색했어요.

너무나 멋내고 싶어서  
빨갯갈게 염색했어요.



## 두 개의 촛불

극성옥과중학교  
2학년 한소영

내 마음 저 깊이에는  
두 개의 빠알간 촛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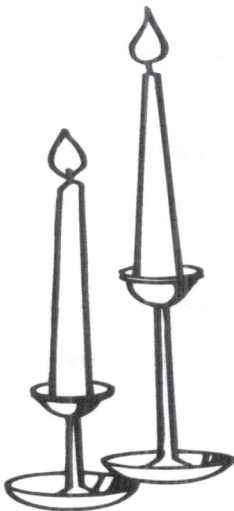
항상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두 개의 촛불은  
언제 어디서든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힘들면  
촛불도 같이 힘들어 하고,  
촛불이 힘들면  
나도 같이 힘이 듭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사랑한다 표현은 잘 못해도  
언젠간 나는  
두 개의 빠알간 촛불에게  
사랑한다 말할 것입니다.  
꼬옥 깨어나 줄 것입니다.

오늘따라  
두 개의 빨간 촛불에게  
기대고 싶고, 이야기 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마음 다할 때까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





# 제비꽃

곡성여자중학교  
2학년 김혜선

보라색 모자  
눌러쓰고

길가에 서서  
봄을  
기다리는  
제비꽃

봄이 오면  
모자 벗고  
활짝 웃어줄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제비꽃은  
길가에 서서  
봄을  
기다린다





## 안개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우영

아직 동이 뜨기도 전에  
조심스레 부스럭거리며  
길을 나서는 할머니.

지마 끝에 재이는  
촉촉한 이슬  
파랗한 땀 위로 내려앉는  
샤아한 기운  
아무렇지 않게 뒤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의미한 가난 속으로 또다시 들어간다.

마루종일 머리가 끊어질 듯  
무릎이 내려앉음 듯  
힘겹게 비린내나는 생선 판저가며  
지나가는 무심한 발길들 사이로  
작은 소리를 내어 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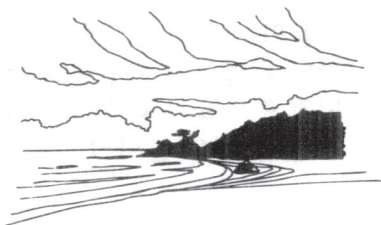


언제나 가장 늦게 집으로 향하시는  
할머니

흔흔이 번 고깃한 지폐들  
부드러운 가슴으로 장롱속 깊숙이 넣어두고

창살에 갇힌  
가슴 저린 막내아들 생각에  
눈물 섞인 미소지어 보는데

루영게 가티워진 남은 여생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로지 아들 위해  
오늘도 조용히  
안개 속을 헤치시는 할머니.





## 길

부제: 슬픔을 잊기 위하여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조윤경

곧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  
소리내어 우는 낙엽과  
곧 지고 마는 것이 아쉬워  
몸부림치는 코스모스를 보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조차 칠 수 없는 내 자신이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흐려진 두 눈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이내 두 볼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내 마음을 더욱더 슬픔으로 억누릅니다.

나의 몸을 비틀거리게 하는 무거운 슬픔이  
나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곧 터질 듯이 부풀어오르는 커다란 슬픔이  
마음 한구석에서 밀려들어 옵니다.



그 마음 잠시 떠나보내  
슬픔이 잊혀지길 바라며  
마냥 즐겁기만 하였던 마음 되찾기를 바라며  
나의 추억들이 축축히 스며들어 있는  
그 길을 걸어 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슬픔을 달랠 수 없습니다.



# 가슴속의 가을

장흥고등학교  
2학년 백경숙



새파랗던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탐스런 감 열릴적이면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삼스레 내눈앞에 노오란 낙엽  
떨어지는 풍경 불적에는  
가을은 이미 내머리위까지  
왔음을 느낍니다.

동네 곳곳에 국화향 아저씨들이  
고소한 할머니집 내음새 풍길적에  
가을은 이미 나의 코앞에서  
춤추고 있음을 봅니다.



어느날 할머니집 찾아갔을 적.  
실타래에 하나씩 곱고 정성스레  
깎아놓은 감을 불적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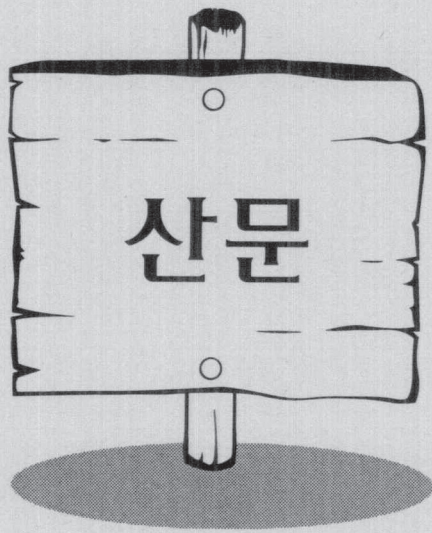
가을은 나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나의가을...  
잊지 못할 이 모든 풍경들을 나의  
가슴속에 새기렵니다.











## 사람이 되고 싶은 땅딸보 마네킹에게

여수자산 초등학교

4학년 송다운

땅딸보 마네킹 안녕?

나 다운이야. 깜짝 놀랐지? 그런데 땅딸보 마네킹!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사람이 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없진 않아. 하지만 사람이 되는 건 좋을 거야. 마네킹은 하루종일 서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하루 하루가 즐거워. 너도 마네킹 하면서 사람들 하는 일 봤지! 넌 지금 하는 일이 싫어? 싫으면 재미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내 말인데, 가끔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셔 그리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어.’ 하고 생각해. 그러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아, 그리고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 아니? 행복한 왕자는 돌로 만든 동상이야. 왕자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제비를 시켜 몸에 있는 보석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어 비록 불품은 없었지만, 행복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왕자가 불품 없어지자 불에 태워 버렸지. 하지만 타지 않는게 있어. 바로 마음이야.

너도 착한 일을 해봐. 누가 아니? 마음이 생길지 마음이 있어야 사람도 될 수 있잖아. 나는 너를 한시라도 빨리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게. 그리고 실패한다고 서운해 하지마. 이런 말도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고 땅딸보 마네킹 힘내.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을거야.

오늘 밤 꿈속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자. 땅딸보 마네킹 잘 있어.

꿈속에서 만날 때까지...

2000년 11월 24일 수요일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은 다은이가





##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부모님의 사랑...

구례중등초등학교  
6학년 신성미

지리산의 가을이 점점 지나가고 나무들도 옷을 벗어버리고 날씨도 이젠 쌀쌀해져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기가 쉬어서 밖에 나가서 뛰어 놀 수가 없게 되면 집안에서 무엇을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날을 반성도 해 볼 겸 지난날들의 추억거리를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보았습니다. 지난날에는 기분 좋은 추억거리들도 많았지만 슬펐던 추억거리가 더욱 많았습니다. 기분 좋은 추억거리는 저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해 주었지만 슬프기만 했던 추억은 왠지 저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되어서 가장 슬펐던 추억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때, 저희 엄마께서 가슴 깊이 새겨주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미워도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또한 제가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 때,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빠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뒷동네에 가서 술을 드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으셨던 아빠께서는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술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



다. 그리고 아빠께서는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시고 발로 차고 언니와 나는 그런 아빠를 막기 위해서 엄마를 둘러 쌓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힘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눈물로 인해서 엄마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와 있었는데 뒤이어 나온 여섯째 언니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나고있었습니다. 그 땐 어떻게 밤이 지났는지 가슴이 조마 조마합니다. 겨우 삼촌이 오셔서 어렵게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잘 땐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도 했지만 엄마께서는 그런 일을 수 없이 겪으시고도 집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면 어떨 땐 엄마가 한심하다는 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로 인해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라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든든히 생각하라고 엄마께서는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께서는 딸만 여덟을 낳아 큰 소리 한번 못치시고 온갖 고생을 하시면 우리를 낳고 길러 주셨으니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덟 자매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우리 여덟 자매를 위해서 애쓰시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든든함입니다.



오늘따라, 그 날의 기억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 잊을 수 없는 그날!

남원주생초등학교  
6학년 한선영

2년 전...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는 여름날!

우리 학교에서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만나의 집에 가게 되었다.  
4,5,6학년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장기를 연습하였다.

만나의 집에 가게된 날!

약 40분이란 긴 시간을 버스에서 보내며 도착한 곳은 바로 장수에 위치하고 있는 만나의 집!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난 만나의 집이란 곳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가게 되어서 더욱 마음이 두근거렸다. 만나의 집에 도착하니 1,2명의 사람들은 나와 계셨다. 만나의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찻집하고 곰팡이 냄새도 나는 듯하였지만 계속 있다보니 괜찮았다. 방이 정돈도 잘 되어 있었고 깨끗했다.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걷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이렇게 정상인으로... 건강한 어린이로 낳아주신 부모님께 새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우리들의 장기를 보여 줄 시간! 처음 온 만큼 열심히 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노력을 하였다. 어색하기도 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장기를 하나, 하나 보실 때마다 박수를 쳐주어서 너무너무 기뻐다. 처음엔 느끼지 못했지만 계속 같이 있다보니 느낌이 꼭 우리 외할머니 같아 편안했





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셨다.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들이 장기를 보여주고 같이 있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이 내 마음속으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너.. 손 두었다가 뭐할려고 그러니? 이럴 때 너의 맵고 솜씨 좋은 손으로 어깨라도 주물러 들여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이다. 그래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다. 힘이 들었지만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은 좋았다. 할머니한테서 풍기는 친근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진한 것인지 몰랐다. 나도 어릴 적에 친구보다 할머니와 같이 있는 것이 좋았던 것을 생각 해 보면 할머니는 무척이나 강한 힘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나의 부모님 같고 나와 알던 사이 같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 얼굴에도 손에도 주름이 많으신 할머니이지만 정이 주름보다 뼈의 수보다 많은 것 같다. 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나중에 우리 엄마가 할머니처럼 되면 같이 살까? 아니면 이 할머니들처럼 양로원 같은 곳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난 날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커서라도 착한 효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 같이 느껴져 더 즐거웠던 것 같다. 할머니 앞에서 계속 꿇어앉았더니 갑자기 쥐가 났다. 난 그 할머니들이 버릇없다고 하실까봐 발은 만지지 않고 조금씩만 움직였더니 할머니는 눈치채셨는지 편하게 앉으라고 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할머니께서 나에게 잘 해주셔서 지나온 옛일을 반성할 수 있었다. 할머니께 뽀뽀



다고 투덜거린 일, 일 안 한다고 화낸 일등... 할머니들과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졌다. “자 가자”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난 할머니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나주에 다시 꼭 찾아볼게요.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아쉬움에 무거웠지만 뿌듯한 보람을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다.





## 효와 장군의 고장

극성서초등학교  
3학년 곽광희

지난주 22일 나는 학교가 끝나고 동생과 같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군민회관에 갔다. 군민회관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군민회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군민회관에 왜 오셨어요” 하고 여쭙어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심청전 발레 공연이 있는데 같이 보자”고 하셨다. 나는 발레가 무엇인지 여쭙어 보았다. 발레는 아무 말 없이 춤을 추면서 심청과 관련된 내용을 공연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심청전 발레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중간쯤에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공연은 어둠 속에서 심청의 집이 보이면서 심청과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무슨 말 인가를 주고 받더니 바다가 보이면서 배 한 척이 떠 있고,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보였고 용왕의 집과 많은 사람들이 한참 동안 춤을 추더니 궁궐에 연꽃들이 만발하게 피고 장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면서 잔치가 벌어진다. 심청은 아버지를 찾은 후 아버지가 눈을 떴는지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운 것 같다. 그리고 왕과 심청이 결혼하면서 끝이 났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춘향전처럼 심청전의 이야기로 춤을 잘 추어 아름답고 멋져 보였다.

지난 4월 1일 KBS 역사 스페셜에서 ‘역사 추적 심청의 바닷



길'을 본적이 있다. 텔레비전에서 본 다음 심청마을은 부모님따라 일요일에 할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들러 보았다. 섬진강을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 친구 마을 앞에는 강이 돌로 막아져 도깨비 살이라고 하는데 마천목 장군이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한 거울에 물고기를 잡수고 싶으시다고 하여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가서 잡을까 하고 강가에서 큰 걱정을 하였더니 하루저녁에 도깨비들이 “살”을 막아주어서 고기를 잡아 아버님께 봉양하였다고 하여 하늘이 낳으신 효자라고 하여 마천목 장군의 비석을 세워 놓은 곳에서 사진도 찍고 아버지의 설명도 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마을 미처 가기전에 송정마을 입구에 심청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있는데 부모님따라 심청마을에 가면서 아버지께서 심청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심청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전 백제때 태어나서 16살 때 중국으로 팔려갈 때까지 이곳 심청마을 (윗 송정)에 살았는데 시냇물은 도화천으로 복숭화 꽃잎이 물위에 둥둥 흘러 다닐 만큼 복숭아 나무가 많았고 2개의 돌탑이 세워진 곳에서 심청마을로 걸어가면서 좌측에는 철을 다듬고 쌓아둔 곳과, 논밭 두렁의 돌들이 녹슨철 색깔 처럼 되어 있고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심청이가 우물가에서 젓동냥을 하였다는 옥녀탕이라고 뜻말에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태어난 심청이는 일찍 어머니가 죽고 심봉사인 아버



지가 등에 업고 다니면서 젓동냥으로 자란후 봉사인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효도를 하였기에 지금까지도 효녀 심청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곰곰히 상상해 보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맛있는 고기 반찬은 없지만 음식을 정성 들여서 맛있게 만들고 봉사인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서 아버지가 눈을 뜨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 같다. 그래서 효녀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심청은 얼굴이 이쁘고 마음씨가 착해서 중국의 왕과 결혼할 때 아버님이 눈을 뜨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난 여름 방학 때 가 보았던 청계동 계곡에서는 양대박 장군이, 옥과와 입면에서는 유팽로 장군이 왜군과 싸우며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하셨다.

목사동에서는 고려 개국공신인 신승겸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키며 살았다고 하셨다.

이처럼 우리 고장에는 심청이와 마천목 장군의 효도 이야기와 양대박, 유팽로, 신승겸 장군들의 유적과 유물을 보고 훌륭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곡성은 효와 장군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도를 하여 나라에 큰 인물이 된 것처럼 나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효도를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 버스 앞에서

곡성검면초등학교  
6학년 문영진

며칠전의 일이다.

복잡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버스 정류장에서 늙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셨다. 그때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그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싶었지만 할머니와 나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양보해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가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주위에 할머니가 짐을 들고 서 계셔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가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얄밋게 느껴졌다.

그런데, 커브 길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자 할머니께서는 무거운 짐을 드신 채 휘청거리시더니 내가 앉은자리에 가까이 밀려오시게 되었다.

그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아서 가세요.”

하고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고마워 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셨다. 버스 안의 여러 사람들이 날 자꾸만 쳐다 보길래,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였지만, 할머니께 도움을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마냥 가슴이 뿌듯하였다. 이렇게 혼잡한 사회 속에서는 서로 위하는 자세, 양보하는 습관을 길러서, 이 사회를 명랑한 사회,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내 친구

곡성입면초등학교  
5학년 서은애

나에게는 항상 내 마음을 똑 터놓고 이야기하는 변함없는 친구가 있다.

우리집 앞 신작로를 지나서 논둑길을 가다보면 넓은 벌판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살고 있다. 우리 집과 아주 가깝다.

그 친구는 삐쩍 마른 몸에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서 내가 찾아가면 “혼자 심심했는데 잘 왔어.” 하고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가끔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다가도 싸우고 기분이 우울할 때면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로 달려가서

“오늘 경숙이랑 놀다가 싸웠어.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하고 속마음을 털어 놓으면 “그래? 화가 많이 났겠구나. 그렇지만 참는 게 이기는 거야. 화가 가라앉았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화해해” 하고 낮은 목소리로 가만히 속삭여 준다. 이럴 때 보통 친구들이라면 “가서 사과하면 될 것 가지고...” 하며 귀찮듯이 말했을 텐데, 이 친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들어 준다. 그러다보면 화났던 마음이 어느 새 사그라진다.

그 친구는 나를 진정시켜주는 묘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엄마에게 꾸중들어 속상할 때도, 오빠에게 머리 한 대 얻어맞고 분할 때도 괜한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화풀이 한다. 그래도 한번도 화내



지 않고 내 화풍이를 끝까지 잘 들어준다. 다른 친구들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토라져서 다른 친구한테 가버리고 변덕을 부리지만 그 친구는 오로지 나만 좋아하고 나만을 생각해 준다. 나는 그런 내 친구가 더없이 좋고 고맙다. 내가 입다 작아지고 헤진 옷과 빛바랜 모자를 가져다 입혀줘도 험 옷이라고 불평 한 마디 안 한다.

“너도 이제 친구가 있으니 목욕도 자주하고 멋 좀 내라. 그리고 그 일그러진 표정이 뭐니? 활짝 웃어봐라!” 하고 쏘아 주면서 엄마 몰래 가져온 화장품을 내 멋대로 발라서 뻘에로처럼 만들어 놔도 빨간 입을 크게 벌리고 헤헤 웃고만 있다.

나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든든한 친구를 두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친구는 내가 한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아 더욱 믿을 수 있는 나의 비밀스런 친구이다. 오늘도 나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 친구를 찾아간다.

그 친구는 바로 우리 집 근처에 허허로운 별판에 외롭게 살아가는 성은 허수고 이름은 아비이다.







## 너와 나의 우정

곡성금지중학교  
1학년 장영신

친구란 언제나 함께 하고, 언제나 믿으면서,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친구란 것이다. 초등학교때 단짝 친구이자, 우정친구인 안나 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게 아주 좋은 친구이다. 우린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친했다. 가끔 싸우기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린 별일도 아닌데, 확실한 일도 아닌데 싸우고 말았다. 아직도 내 기억에 남을만큼 큰 싸움이였다. 안나와의 친구들 몇 명이 안나와 싸우고 싶어했는데, 그 계기로 안나 욕도 하고 안나와 싸우기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나는 한 친구에게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안나가 우리 아빠, 엄마 말 못한다고..... 그렇게 놀린 것에 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확실히 모른체 말이다. 그래서 다음날 정말로 싸웠다.

“장안나! 네가 우리 아빠, 엄마 욕했다며?”

“뭘”

“우리 아빠, 엄마 말 못한다고.”

“아니야, 나 정말 그런 말 한적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라고 했어. 그런데 너네 아빠, 엄마를 왜 욕해.” 안나는 그 말을 하면서 울었다. 순간 그 말의 진실함을 느꼈다. 나도 울었다. 나



도 울면서 “안나야 미안해,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잘 못했어.”

우린 손잡고 울면서 사과했다. 웬만하면 안우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우는 동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싸우고나서 우린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친구끼리는 서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였다. 하지만 내 친구를 못 믿고, 몰아세운 내 자신이 참 원망스럽기도 했고, 안나에게 미안했다. 무엇보다도 안나는 나에게 무척 실망했을텐데.....

그런 일을 잊고 지낸 채, 우리는 어느새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안나와 난 중학생이 되어도 변치 않는 우정을 지키기로 했었고, 중학생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초조함과 궁금증을 알려주기도 했다. 나 또한 중학생이 된다는 사실에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다.

우린 중학생답게 교복도 입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재미있고 즐거워만 갔다. 한 친구가 전학오기 전까지는.....

그 친구와 난 많이 빼그덕 거렸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는 나빠져갔다. 안나와도..... . 결국 여러 여러 일과 선배들 일까지 해서 싸우고 말았다. 나의 잘못이 아주 많이 무지 큰 것 뿐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날 배신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후회가 된 만큼 많이 이해가 된다.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꿈 같다.



다시 화해는 했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었고, 안나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 가슴아픈 건 이젠 안나가 나한테 올수 없을만큼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안나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성적이 나빠지고 낮아지고 있고, 뭔가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 그런 안나를 난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위로도 못해주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웠다.

집에 같이 가지도 않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 이런것만 봐도 우린 멀어졌다는 걸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친구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준 일이 있었다. 소풍 날, 우리는 남원랜드로 가기로 했다. 각자 그 장소로 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난 혼자 가야 했다.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안나밖에 없는데, 안나는 5명의 친구와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젠 안나에겐 그 5명의 친구가 소중한 친구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소풍날 아침, 뜻밖에 일이 일어났다.

안나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게 아닌가! 난 내 귀를 의심하며 밖에 나갔다.

그랬더니 다름 아닌 내 친구 안나가 서 있었다. "같이 가자고." "정말?"

난 너무 좋았고, 같이 가자고 찾아온 안나가 너무 고마웠다.

"안나야, 고마워. 네가 같이 가자고 할 줄 몰랐어. 고마워." 안나는 피식 웃고만 있었다.



그런데 이상해서 물었다. “안나야, 너 애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지 않았어?”

“어 그랬는데, 그냥.....” 안나는 말끝을 흐렸다. 안나가 왜 나랑 같이 갔는지 이유는 남원에 가서야 전학 왔던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알 수 있었다.

내 옆에 친구들과 내게 말했다. “야, 안나. 영신이랑 같이 오בות하게 손잡고 온다고 우리랑 같이 안갔어.” 그래?. 안나는 나를 위해서 다른 애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나랑 같이 갔던 것이다. 그렇게 되 거라고 차마 얘기하지 못한 안나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코끝이 찡하고 안나에게 조그만 감동을 받았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안나가 날 싫어한다고 의심해 왔었다. 안나한테 미안한게 너무 많아서 탈이다.

‘안나야, 미안해. 난 널 미워할 자격도 없는데, 널 미워해서.....’

체력검사 중 달리기가 있었는데, 6바퀴를 오래 달려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때, 잘해라고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주던 안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안나가 힘을 준 것이다.

그래서 난 열심히 끝까지 뛸수 있었다.

‘난 안나에게 잘해란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 안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 야니, 될려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시절이 그렇지 않을만큼 지금 현재 안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런 내마음을 안나는 이해해 주었으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둘 아픔 없이 우정 지키고 싶다. 소원을 빌고 싶지만,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내가 노력해서 안나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싶다. 안나가 초등학교 때 써준 소설에 있는 이야기를 나중에 읽어보기로 했었는데.....

나를 위한 이야기라면서 써준 것인데, 제목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목수들이여, 대들보를 올려라.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이레스와 같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드높은 키를 자랑하면서 신랑이 나타나신다.

사랑의 시인인 사포와도 같은 시인이 그대에게 사랑을 보내노라.

그대의 아름다운 뮤리엘과 그지없이 행복할지어다.」

〈대들보를 올려라〉본문 中에서

내 가슴 속에 새겨두고 있다. 안나도 그럴테지만.

언젠가 같이 읽어보는 날이 있겠지, 내 소중한 친구 안나에게 고마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다. 안나야, 너 내맘 다 안 댔지?

그럼 날 용서해 줘라, 싸운 건 아니지만, 나한테 쌓인 감정 다 풀고 나랑 좋은 친구 하자. 고등학교도 같이 가구.

안나야, 난 널 사랑해, 친구로서.....

친구는 믿음으로서 우정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또 깨달았다.



## 촛불 하나

곡성옥과중학교

3학년 여난설

3학년 졸업고사가 끝났던 지난 화요일, “god”의 노래테잎을 샀다.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가 좋아서 ‘한번 사봐야지’ 하고 맘먹고 있었는데, 시험도 끝난 기념으로 하나 장만한 것이다. 새 테잎을 사면 누구나 그렇듯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디오에 테잎을 넣고 수록된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유난히 내 귀를 끄는 노래가 있어

다시 한번 들어보았고, 지금은 내가 가장 즐겨듣는 곡이 되었다. 노래제목은 “촛불하나”이다. 이노래는 “세상엔 우리들 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애들아.”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된다. 순간 이 노래가 우리 또래의 불우한 이웃에게 포기하지 말고 힘과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 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 가고..” 이 노래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물질만능 주의에 찌들어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해본다. 돈 위에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더욱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



고, 소외 되어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기신세를 한탄하며 자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라는 인생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찾아올 수도 있고, 비켜도 가는 것이다. 때문에 자기자신의 인생은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 똑같은 초 하나씩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똑같이 지닌 그 초를 밝히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실망해서도 안된다. 누가 그랬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밝게 완성시킬 그 희망의 초를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자신의 신세를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당장 그 초를 찾아 할 수 있다는 패기와 희망의 빛으로 불을 환히 밝혀보기를 바란다. 어쩌면 노랫말대로 당신 주위에 또 다른 많은 촛불들이 있어 앞으로의 삶을 환히 밝혀줄 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곧 연말이다.

우리의 조그만한 정성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우리의 정성 하나하나가 불우한 이웃에게 밝은 “촛불하나”를 안겨준다면, 그들이 이 겨울을 춥지 않고, 따뜻하게 보내리라 생각해 본다.



## 우리 가족의 “한바탕 웃음” 이야기

곡성입면중학교  
2학년 정지영

어느 날 저녁, 학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 가려고 할 때, 집안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동생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흘러 나오는 알 수 없는 말들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듯 하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는걸까? 나는 얼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다녀 왔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내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방 곳곳에 널려있는 책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 야단 법석이다. 자세히 보니 시를 쓰는 것 같았다. 막내 동생이 나에게 와서,

“누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는데 잘 못 쓰겠어. 누나가 도와 주면 안될까?”

“안돼! 숙제는 네가 스스로 해야지. 하지만 네가 시를 써서 누나에게 보여 주면 틀린점은 고쳐 주도록 할게. 알았지?”

하고 동생에게 말하자 동생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알았어. 누나”

하며 열심히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몇 십분이 지났을까? 동생들이 각자의 시 한편씩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누나 다 썼어! 잘 썼는지 좀 봐줘”

“알았어”

먼저 첫째 동생의 시를 읽어 보았다.

“음.”

“그런데로 잘 ?어. 여기 이 부분을 다른말로 바꿔쓰면 어떨까?”

“알았어. 누나 고마워.”

다음은 둘째 동생의 시. 나는 이 시를 읽자마자 웃음을 참을수가 없었다. 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 하자면... 내 동생은 두편의 시를 나에게 내밀었다.

첫째 시. 제목은 “강아지”

우리집 강아지는 언제나 나를 반겨준다. 학교에 갈 때도 집에 돌아올때도 하지만 한가지 걱정이 있다. 우리집 개는 언제 커서 사냥개가 될까?

나는 웃음을 참을수가 없었다. 다음은 두 번째 시. 제목은 “닭”

닭은 날마다 초가지붕 위에서 아침이 왔음을 알린다. “꼬끼오” 하지만 닭은 잠도 앓으나 보다. “닭아 닭아” 제발 한번만 잠 좀 자봐라 닭아 그게 나의 소원이다. 잠 좀 자라 닭아...

“푸하하”

“이게 무슨 시야~” 이런시는 처음 봤어. 나는 얼른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로 달려가 동생이 쓴 시를 읽어 드렸다. 엄마도 내가



시를 읽자마자 배꼽을 잡으시며 웃으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배꼽을 잡고 한바탕 집이 떠나 가도록 웃어댔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있었던 잊지 못할 사건은 정말 나의 기억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동생 찬훈아. 미안해





## 보람된 테마소풍

곡성여자중학교  
1학년 이한나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우리 학생들의 희망 가을소풍을 우리 곡성여자중학교에서는 산간내륙의 곡성과 정반대인 바닷가 쪽의 여수로 테마소풍을 갔다.

여수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끝없는 바다였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번 바다를 본 것과는 왠지 모르게 새로웠다.

바다를 보다 여수 돌산대교를 지났다. 돌산대교는 길이 450m, 폭 11.7m의 사장교였다. 돌산대교에서의 바라다보는 다도해와 여수권은 참 아름다웠다.

다음은 향일암으로 향했다.

향일암은 가는 데에도 예사롭지 않았다. 꼬불꼬불 꼬인 길이 계속 되다가 주차장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는데 시멘트 길이 가파르기는 왜 이렇게 가파르던지 각도가 거의 75°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이 길을 따라 계단이 시작되었다. 안내판에 이 계단이 1000개? 정도 된다고 해서 친구들과 계단을 세어가면서 걸으니 힘들면서도 재미있었다. 그러나 계단은 몇백 개 밖에 되지 않았다. 돌 틈으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드디어 향일암이 드러났다.

향일암은 신라 선덕왕 13년(64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당



시는 원통암이라고 명명했으나, 고려 광종 9년(958년)에 윤필대사가 금오암으로, 조선 숙종 41년(1715년)에 인복대사가 향일암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충무공을 도와 싸웠던 승려군의 근거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대웅전과 관음전, 칠성각, 독서당, 취성루 등이 복원돼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남해 수평선의 일출 광경이 장관을 이루어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의 향일암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주위의 바위 모양이 거북의 등처럼 되어 있어 영구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이 향일은 12월말부터 1월 초순에는 이곳 일출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 40호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향일암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은빛바다 같았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소풍에는 딱 이었다. 이곳은 동백나무와 아열대 식물이 숲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생소했다.

다음은 전라남도 수산종합관으로 향했다. 가면서 원래 갈 예정이었던 방죽포해수욕장을 시간 관계상 창문으로서 잠시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수산종합관에서 점심을 먹고 견학을 하기로 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바다를 바라다 보면서……. 그런데 그 곳이 좀 더러워서 안타까웠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수산종합관을 관람했다.

1층에는 주로 화석이 있었고, 2층에는 고래뼈가 있었는데, 모형이라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영상들과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암모나이트를 보아서 좋았다. 우리 곡성에는 전혀 볼 수가 없



는 수산종합관에서는 여러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종합관 안에서의 바다가 보이는 데서, 사진을 찍는 언니들이 부러웠다.

이번 테마소풍을 다녀와서 우리 곡성과는 다른 곳을 다녀오니, 정말 신기하고, 많은 공부가 되어서 좋았다. 그런데 몇 명의 언니들의 옷차림에 놀라곤 했다. 이곳이 소풍 온 것인데, 데이트 온 것 같이 치마에 구두에 화장까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절대 안 그렇게 해야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버스 안에서의 멀미만 좀 덜했다면 편했을 걸.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오지 못해서 섭섭했다. 그래도 너무 보람된 하루였다.





##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

극성여자중학교  
2학년 신연순

‘독서는 인생의 끝없는 만남이다’라고 누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옛 조상들의 사상과, 혹은 글 속의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무엇과 만남을 이룬다는 것이다. 항상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은 인생에 있어서의 바른 길을 책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작으로, ‘노인과 바다’의 헤밍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사상과 관념이 이 글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기에 나는 한 노인의 집념과 희망을 그린 이 작품의 내용을 여기에 간단히 적고자한다.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은 이름난 어부이며 근면 건설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으나 점점 쇠약해지자 능력이 달리게 된다. 부모의 성화로 홀로 어부생활을 하던 소년은 이미 쇠약해져 버린 노인을 불쌍히 여기어 힘껏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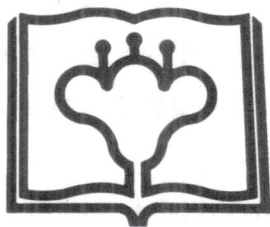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위로로 희망을 갖게 된 노인은 홀로 멀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떠난다. 건강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집념과 희망을 찾은 그는, 그의 배보다도 더 큰 고기와 싸워



서 마침내는 그 고기를 잡아 돌아오지만, 상어의 습격을 받아 고기는 뼈만 남게 되고, 허탈한 심정이 되어 돌아온다.

아쉬움과 패배감으로 지친 노인은 다시 희망을 되찾는다. 살점은 모조리 상어에게 빼앗기고 남은 거대한 고기뼈는 주위 사람들과 관광객을 놀라게 하고, 노인은 다시금 안정을 얻어 휴식을 취함으로써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 작품에서 두 인물, 즉 노인과 소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이다. 어부의 생활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굶주림 속에서도 자립성이 강한 노인과, 노인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씨의 소년에게서 나는 다분히 공감을 느끼게 된다.





## 자작나무를 닮은 친구

극성여자중학교  
2학년 배은성

학교 교문에 있는 은행나무길만 보면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자작나무 숲이 자주 연상되곤 한다. 난 은빛이 나는 자작나무를 좋아한다. 그건, 아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친구를 닮아서 일 것이다.

그 친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그 길을 환하게 은빛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친하던 친구와 반도 떨어지고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했다.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많은데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하기도 어려워했던 나로서 다른 초등학교를 나왔던 애들과 친해지기는 힘들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주일 뒤, 다른 친구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있었다.

그 뒤부터는 학교 다니기도 재미있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간다는 사실에 내 가슴 가득히 뿌듯함도 채워져 갔다. 그리고 자작나무를 닮은 그 친구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새겨 주었다. 짓궂은 장난하나로…….

그렇게 금새 몇 달이 지나가고 난 2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던 그 때에 자작나무의 빛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왔었을 것이다. 그 친구의 한마디 말로.

“내가 너랑 같은 반 될 줄 알았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 볼 때마다 내 마음속의 허전한 길에 자작 나무 한 그루가 커져가고 있었다.

“희진아~”라고…….

희진이는 보기와는 다른 아이였다. 뭔가 속이 짝 차 보여서 공부만 하고 사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희진이의 매력은 그 장난기 다분한 행동과 겁이 많은 듯한 큰 눈에 있었다. 희진이의 장난기 덕분에 같이 있으면 침묵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 때문에 더 친근감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희진이는 자신이 예쁘다고 공주병 환자처럼 말하곤 했다. 겉으로는 구역질을 해댔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예쁘다고 생각했다.

나보다 훨씬 큰 160cm가 넘는 키에 날씬하다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

수학여행 갔을 때 용인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희진이와 나는 보람이와 슬기가 놀이기구 타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다. 놀이기구 타는 걸 싫어해서 수학여행 가기 전부터 돌아다니기만 하자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다. 난 나만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희진이에게 많은 동질감을 느꼈었다. 희진이는 가끔씩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다.

“나 너무 좋아하지마. 난 동성은 싫어해”

난 희진이의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자기도 아는데 장난으로 그러는 것일 거다.



울기도 많이 울고 빠치기도 많이 빠치고 웃기도 많이 웃고 장난  
또한 잘치는 예쁜 친구 희진아. 넌 나의 길을 은빛으로 환하게 비춰  
주는 자작나무 같은 친구야... 언젠가는 내 가슴속에 '빨강머리 앤'  
에 나오는 울창한 자작나무 숲이 내 길을 밝혀주고 있을 거라 생각  
한다.

한 그루도 베어나가지 않는 하얗고 예쁜 울창한 숲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남아있으리라고.....





## 회 상

곡성여자중학교  
2학년 윤미애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인데 난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이다. 그때에도 나는 진정으로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집이 멀어서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어렵게 사귀 단짝친구가 전학간 이후로는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하였고 항상 혼자서 지내야만했다. 하교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은 몇몇이 짝을 지어 다녔지만 난 항상 혼자였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난 혼자였다. 그날은 학교에서 선생님 심부름하다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각에 학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교문 앞에는 커다란 붓고 차를, 까만 옷을 입은 아저씨 두 명이 손으로 짊고 서 있었다. 유난히도 밝은 햇빛에 아저씨들의 인상도 정말 무서워 보였다. 그 시기에는 한참 유괴가 유행하여 텔레비전에서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내 또래의 아이들이 유괴되었다가 부모님 얼굴도 영영 보지 못하게 된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난 그 아저씨들을 못 본 척 피해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빨리 가려고 하는 내 의지와는 달리 그 아저씨들은 날 불러 세웠다. 난 두려워하면서도 나쁜 아저씨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아저씨들을 향해 돌아섰고, 아저씨들은 나에게 말하였다.



“꼬마야, 이제 집에 가니? 아저씨들이 집에 데려다 줄게. 타거라. 꼬마야,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란다. 응? 어서 타. 너희 엄마가 너 데려오라고 아저씨들한테 부탁했어. 어서 아저씨들하고 가자. 응? 어서.”

그 아저씨들은 서두를 이유도 없는데 날 빨리 차에 태우려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유난히도 빛나는 까만 옷에 무서운 인상이, 아저씨들의 말을 못 믿게 하였고, 날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아저씨들의 말을 믿으면 다시는 내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다. 급기야는 그 아저씨들 쪽으로 뺨어있는 지름길을 제쳐두고 내 쪽으로 뺨어있는 먼길로 내 발이 가는 대로 그 아저씨들을 뒤로 한 채 빨리 뛰어서 그곳을 빠져 나와 그곳에서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내가 빨리 뛰어가자 그 아저씨들은 날 포기한 듯 전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 가버렸다.

그날, 집에 가서 엄마께 아저씨들이 말한 대로 그 아저씨들한테 날 데려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고 여쭙어 보니 엄마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잘했다고, 그 아저씨들을 안 따라가길 정말 잘했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씀하셨다.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께서 날 부르셨다. 그리고는 꼬옥 껴안아 주셨다. 엄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새삼 그때 아저씨들을 따라가지 않은 게 무척이나 대견스러웠다. 그때 따라 가버렸다면 이런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

요즘에는 유괴를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참 다행이다. 문득 5년여 전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 나의 사계

극성 여자중학교  
3학년 정애선

난,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좋아한다. 가끔씩 무슨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행복한 어린 시절! 그때의 행복 감에 젖어들기 일쑤이다. 혼자서 웃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하게도 만든다. 어린 시절은 모든게 초라하고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그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웠다.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행복이 준 보물이다. 그중 몇 개를 꺼내보면.....

봄이라고 내게 귀뜸 해 주는 것은 살포시 터질려고 노란 꽃잎을 가린 채 기다리는 산수유 꽃이었다. 그것이 따스한 봄 햇볕 아래 노랗게 빛이 나면 얼마나 예쁘던지! 나지막한 들담위로 노란 화사함을 수줍은 듯 드러내놓고 있었다. 어느 꽃보다 예뻐다. 이른 봄에는 분홍의 진달래와 여러 가지 색의 이름 모를 꽃이 향기를 품어내고 따듯한 바람에 초록색 두 개의 잎이 방긋거리고 나올 때 우리는 칼과 소쿠리를 들고 논두렁을 찾아 다녔다. 새까맣게 태운 꽃에서 그 작은 것들은 어떻게 땅속에서 나왔을까? 한 소쿠리가 다 차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막 나온 부드러운 찹레 순을 따먹고 뺨비를 뿜아 먹었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냉이는 캐지 않고 풀만 뜯어 오던 내 동생의 모습과 함께.....

어둠 속에서 개구리가 울면, 우리 가족은 마당에 와상을 펴고, 시원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놀았던 것 같다. 옥수수와 감자를 한 소쿠리에 내놓고 너무나도 가깝게 있는 캄캄한 밤하늘의 빛나는 별빛을 보며 우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살펴보곤 했었다. 그러다 하나가 떨어지면 사라지기 직전에 소원을 빌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소원이 이루어진



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믿었기에.....

첫 번째 별똥별은 소원을 생각 하다가 빌지 못하고 두 번째 별똥별은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말하다가 못하고, 그 별똥별은 그때 벌써 내 소원을 들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난 그때 너무 행복 했었으니까.....

여름한때, 비가 한차례 쏟아졌다. 처음에는 거세게 쏟아지더니 보슬보슬 내리기만 한다. 해는 언제 나왔나?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닌데..... 괜히 나와 축스러우니까 곱다란 무지개 하나 만들어 주고 돌아간다. 앞산 보다 더 크게 만들어진 무지개는 우리를 그 작게 내린 비로 옷을 젖게 만들었다. 그래도 너무 예쁜 일곱 무지개의 빛깔은 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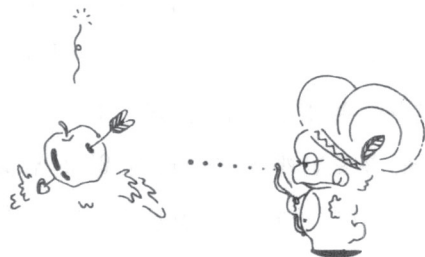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것은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이었다.

지금도 그때 하늘을 생각하면 가슴이 뒹다. 그러니까 내가 한 여섯 살 적이었을까? 엄마랑 아빠랑 경운기를 타고 나무를 하러 갈 때이다.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았다. 나무를 때든 우리 집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겨울을 나곤 했는데 땀감을 구하러 갈때는 나도 경운기를 타고 따라갔었다. 마른 솔잎은 갈퀴로 긁어모으기도 하고, 탁탁 소리로 곧잘 부러지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가서 자루에 부어 담았는데, 넉넉할 정도로 해 가지고 이른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가 있었다. 비탈길을 경운기를 타고 내려오면 주황빛, 아님 선홍빛의 붉은 물이 번져 있었다. 구름을 붉게 물들여놓고 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침에 빛나던 해의 열정은 아마도 주황물감이 되어 버렸나보다.

코 끝에 부는 바람이 차가웁고 굴뚝에서는 뿌연 연기가 난다. 밖에서 냄새를 맡으면 너무나도 구수한데 부엌에 계신 엄마는 불을 지피면서 연신 콜록거리신다. 나도 한번 들어갔다 눈물만 빼고 나



왔다. 바람은 더욱더 날카로워져 코끝을 시리게 했다. 그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하늘에서는 뽕송뽕송한 흰눈이 내린다. 살갓에 닿으면 금방 녹아버리는 조그만한 눈송이가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놨다. 나무 가지에도 내 새끼 손가락만큼 눈이 쌓였고 까만 바위를 하얗게 덮어 버렸다. 우리 집 누렁이는 다리가 푹푹 빠지는데 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다. 집 위의 언덕으로 비닐 푸대를 하나씩 들고 올라가니까 애들은 벌써부터 나와있었다. 올라가 타고 내려오면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춥지도 않았다. 몇 번이나 뒀을까? 엉덩이가 앉은 자리 만큼 축축히 되고 손과 발이 땡땡 얼어있었다. 아랫목에 손을 넣고 있으니 스르르 녹으면서 잠이온다. 솔뚜껑 위에 올려놓은 눈 묻은 병어리 장갑이 녹고..... 활활 타던 아궁이의 불이 서서히 작아지고..... 이젠 다시 그 시절로 돌아 갈수 없을까? 하지만 나의 어릴 적 생각을 하면 웃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보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효

곡성중학교  
2학년 김규태

책이나 텔레비전으로 보았던 심청이가 곡성출신이라니 정말 환호작약(歡呼雀躍)할 일이다.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하다고 한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정성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백가지 행동의 근원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이 말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부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낳으셨을 때부터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 주셨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에는 늘 얼굴에 웃음을 띠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나갈 때에는 어디 갔다오겠다고 말씀드려 바깥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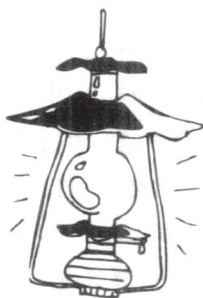
내가 1학년 때인데,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밤늦게 까지 친구들과 놀았다. 8시가 되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알고 보니 집에 안 오길래 친구집에 전화도 해보고 마을을 찾아 다니셨다고 하셨다. 추운 날씨에 날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정말 미안





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부모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효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부모님께 대한 지극한 효성을 사람들은 마음 속 깊이 깨달아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한다. 오직 자식들만을 보시며 살아오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정성으로…….





## 청소년과 효

곡성중학교  
2학년 오준환

“준환아, 밥먹어야지.”

“.....”

“준환아, 뭐하니?”

“나 참. 알았어, 갈게!”

나와 우리 어머니와의 대화는 거의 이런 식이다. 이젠 내가 봐도 도대체 어머니께 하는 건지 친구에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변명은 아니지만, 이젠 꼭 나만의 일은 아니다. 요즘 사람,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조금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은 어릴 때의 습관, 혹은 빼놓아진 반항심으로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그러한 청소년중의 하나다. 그런데 얼마 전, TV를 보다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TV에 내가 사는 이 곡성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심청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쩌면 심청이 실존인물일지도 모르며, 그 심청이 곡성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그냥 ‘세상에, 곡성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 머리를 치는 생각, 심청같은 사람도 있는데 같은 곡성 사람인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했던가?

뭐, 물론 곡성에서 산다고 해서 꼭 심청같은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니,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심청은 과거 유교적 사고 방식으로,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되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한 것처럼 생업도 포기하고, 부모님 무덤 앞에 움



막을 짓고 3년을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던 시절에도 효녀로 추앙받던 사람이다.

그런 심청과 21세기를 사는 나를 비교할 수는 없다. 만약 지금도 심청같은 부모의 눈을 띄우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 죽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국의 여러 단체에서 받은 상패 따위가 넘쳐날 것이고, 그의 효행은 책이 되어 나오거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심청처럼 인당수에 뛰어 들어가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부모님께 지켜드리자는 이야기이다. 사회와 문명이 변해가듯, 가족구조와 역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부모님께서 날 낳고 길러주셨다는 데에는 심청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지 않나 싶다. 어쨌거나 우리의 부모님은 날 낳으셨고, 날 이 나이 먹도록 길러주셨고, 앞으로 도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이 아닌가?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버릇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은 항상 우리 세대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이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는 하지만,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또한 무척 잘 지킨다.

정작, 청소년들이 버릇이 없고 부모님께 예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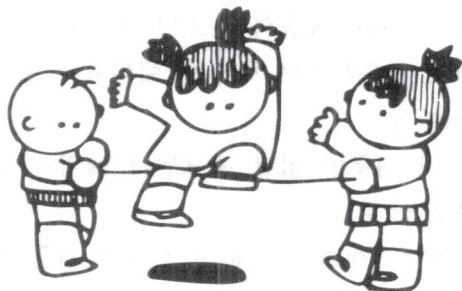
부모님세대와 우리세대가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이상을 바라고 계시므로, 우리는 효도할 줄 모르는 청소년이 돼버리는 것이다. 결국 일부의 버릇없는 청소년들은 진짜 버릇이 없는 청소년들 일지 몰라도 '모든 청소년은 버릇이 없다' 한 이야기는 세대차이에



서 오는 거짓말인 것이다.

몇 해전, 추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어릴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고, 유교를 배운 21세기, '마지막 선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분의 효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저게 이 시대에 맞는 효행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정이 메마르고, 예의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다시 심청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번거로운 형식까지 따라갈 것은 없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이 시대의 효라는 것은 형식보다는 그 정신이 먼저 여야하지 않나 싶다.





## 나를 깨우쳐 준 심청이

곡성옥산중학교  
2학년 김미화

오늘도 어김없이 TV앞에 앉는다. 유달리,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  
에만 충실하라는 부모님께서도 이 시간만큼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  
다. 들뜬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귀기울여 잘 보라는 말씀  
뿐…….

‘역사스페셜’이라는 첫 화면이 유난히 신비롭게 느껴졌다. 이 시간  
에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접해 읽었던 판소리계 소설 중 심청  
전에 나오는 ‘심청’에 대해서 나오는데, 허구적인 인물로만 생각해  
왔던 심청이, 최근 학문적 연구에 의하면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것  
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의식하게된 이유가 그 실존인물이 바로 우  
리 고장인 곡성에서 출생한 만고효녀인 원홍장이라는 것이다. 효녀  
로 널리 알려진 심청이 내가 살고 있는 고장 곡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나는 무척 자랑스러웠고, 관심이 더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만물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에게  
걸맞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에서부터  
산과 들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아주 작은 들꽃 하나에도……. 하물  
며 사람들은 아기를 낳게되면 이름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인  
지 나도 심청의 본래 이름이 무척 궁금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1700  
년 전인 3~4세기경에는 우리 나라에 성씨가 보편화되지 않아, 심청



의 이름이 다양했는데, 관음사 사적기에 의하면 원홍장이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심청이란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성은 남편이 심씨인데서 따오고, 청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산다는 삼청궁에서 기인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사실을 뒤로한 채, 국어사전을 펴 들었다. 그리고는 심청이라는 단어를 찾았다. 심청이란 짙은 푸른빛을 뜻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짙은 푸른빛이 심청이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푸른빛이 심청이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말이 더 좋게 느껴졌다.

이름만큼 심청이의 출생내력도 궁금한 거라, 호기심에 가득 찬 눈과 귀를 더 기울였다. 백제 고이왕 말년에 곡성군 오곡면 송정마을에서 출생한 심청은 아버지의 등에 업혀 젖동냥으로 성장했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것도 더 없는 큰 슬픔일텐데, 아버지마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는데, 심청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모셨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의 아버지께서 밖에 나갔다가 시주가 되어달라는 화주승을 만났는데, 그만 자신의 딸을 약속하고 말았다. 그래서 심청은 애써 마음을 달래고 아버지의 눈이 다시 뜨게되지만 바라며 화주스님을 따라 나섰는데, 도중에 중국 회계국의 국제 상인을 만나 스님에게 보화를 주고 심청은 심국공의 아내로 팔려갔다. 그 후 고국에 관음성상을 보내오고 옥과의 성덕처녀에 의해 지금의 성덕산 기슭에 이 불상이 안치되고 관음사가 창건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인이라는데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책에서 보면 상인에게 팔려가 재물이 되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수많은 한국여인들의 슬픈 수난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뿐 인당수에 빠지지 않았고, 중국왕의 황후가 되었다는 것도 허위로 꾸민 이야기라고 하는데, 비록 우리가 책에서만 접해 알고 지내왔던 심청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는 심청의 효성은 변함없이 나타내지고 있는데, 나도 이제부터 심청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한 발자국씩 힘찬 발걸음을 옮기기로 다짐해 본다. 그리고 나의 생활도 반성해 보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제2의 효녀 심청이가 되어야겠다.



## 눈이 부신 날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향남

오늘도 나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다시는 울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는데, 그게 그리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참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자신의 착각이었다.

오늘도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휘청휘청거리는 다리로 골목길을 걸으며 진짜사나이라는 노래 소리가 나면 나는 방에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해보려 한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잔소리.....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와 아버지는 큰소리를 내며 싸우시고 잠시 비명소리가 들리고 다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는 집을 나간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기에 나는 엄마가 몇시간 뒤에는 돌아오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잠을 청한다. 그리고 그다음날 아침.....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다. 싸우시고 엄마가 집을 나갔다가 꼭 몇 시간뒤에는 돌아오시는데 그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부엌문을 열고 쳐다봐도, 화장실에도 가 보아도, 어떤 곳에서도 엄마는 없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갔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도 엄마는 계시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사이에 엄마가 오셔서 엄마의 짐을 챙기고 간 흔적밖에는..... 급기야 엄마는 집을 영원히 떠나시고 말았다. 난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입조차도 열리지 않았고 눈앞만이 캄캄했다. 발에는 무거운 추를 달아 놓은 것처럼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만은 내 마음을 알았는지 눈에서 눈물이 두뺨을 타고 흘렀다. 입이라고 열리면 아빠한테 화라도 낼텐데.....모든 것이 멈춰 버린 것 같았다. 그냥 주저 앉아서 흐느끼기만할 뿐.....

이제 엄마가 없는 첫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웬지 이번 겨울은 더욱 춥게만 느껴졌다.

“누나 이제 왔어.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배고파”

“아빠는 오셨어. 엄마는.....미안 오늘 누나 연습하고 온다고, 우리 동욱이 배 많이 고프지. 어서 가서 밥해 먹자.”

“응! 누나..... 근데 엄마는 언제쯤 와. 엄마 보고 싶어.”

“엄마는 말이야..... 엄마는, 아마 우리 동욱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되면 오실거야. 어서 들어가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엄마의 옷장에는 몇 벌의 옷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엄마는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나마 엄마가 다시 돌아오시겠지라는 희망마저도 조금씩 상실되기만 했다. 나는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아무도 버는 사람도 없고 끼니마저도 잇기도 힘든데 무슨 돈으로 무슨 재주로 학교를 다니겠는가? 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꿈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내 나이 18살에 포기란 말은 너무 이른 것 같았다. 난 성적도 좋았고 음악적 재능도 인정받았는데.....

난 첼로 연주가 꿈이다. 햇빛이 내려쬐는 조용한 음악실에서 은



은한 첼로 소리가 한 학교전체에 울려 퍼진다.

“자 이게 아니지. 이렇게..... 다시 해 보자.

나는 다음주에 있을 음악 콩크르대회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돈이 뭔지, 그놈에 돈이 뭔지..... 돈이 없어서 나는 공부도 음악도 포기해야 했다.

“28번 강민주 담임이 상담실로 오래.”

난 이제 담임이 날 왜 부르지 잘 안다. 밀린 등록금과 성적.....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뿌연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 왔구나. 앉으렴. 민주 아직도 많이 힘들지. 힘들어도 학비는 내야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시 되새겨주니 쓴웃음만이 나왔다.

“선생님 다음 주까지 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꼭 내라. 그래 가서 공부해.”

그냥 주저 앉아 울고 싶었다. 모든걸 그만 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난 교실에 와 자리에 주저 앉아 버렸다. 그리고 애써 감추어버린 눈물을 흘렸다.

“민주야 왜 그래? 담임이 무슨 말 했는데.....”

“희정아 나 학교 그만 다녀야 될거 같아. 공부도 첼로도 다 포기할 가봐.”



“그게 무슨 말이야. 울지마. 힘내 다 잘 될거야.”

친구들의 위로도 이젠 동정으로도 느껴졌다. 난 많은 생각 끝에 나의 꿈을 접기로 했다. 난 다 내지도 못한 등록금만을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난 내 자신도 포기했는데 아빠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았다. 엄마는 떠났고 이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아빠는 변한게 하나도 없었다. 술과 도박에 그리고 계집질까지..... 난 아빠에게 꿰어오르는 원망을 참을 수 없었다. 죽이고 싶었다. 자식은 무능한 부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살아갈 궁리를 하는데 애비라는 사람은 정녕 철없는 짓만하니.....

때로는 혼자 도망쳐서 살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아직 나이 어린 동생이 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있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엄마도 안 계시는데 나 마저도 없으면 동생은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게 된다.

난 늘 일을 하러 나갈 때면 동생을 재운다.

“동욱아 이리와. 자야지.”

“누나, 누나는 또 나 재워놓고 나갈거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은 우리 동욱이 옆에 있을게. 자 눈 감고 자자.”

오늘도 동생은 칭얼대고 자기 싫다고 때쓰지만 어느새 동생은 내가 어디라도 갈까봐 내손을 꼭 붙잡고 잠을 이룬다. 동생이 깊이 잠이 들어서야 나는 일을 하러 난 조용히 나간다.



“미안하다. 동욱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지만 그건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도 절대로 술집에는 안나가겠다는 욕심으로 난 아르바이트를 두 개씩이나 했다. 먹고 지낼만은 했지만 아버지의 술 외상값을 갚다보면 동생 유치원 회비를 못 맞추는 일이 일수였다. 그런 동생에게 나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내가 다 못한 것을 동생이라도 해주고 싶어 난 열심히 일을 했다.

우리 집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건축가이고 엄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부모님은 나를 어렵사리 가지시고 집안도 그런대로 잘 살았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아버지는 뛰어난 건축 설계로 많은 돈을 벌으셨다. 그리고 나에게도 귀여운 동생도 생겼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했고 난 별탈없이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는 가족끼리 나들이 갈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아빠 전화왔다.”

“아빠가 받을게. 여보세요.”

“거기 김사장님집 맞습니까? 김사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전 데요. 누구십니까?”

“큰일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겠습니다.”

아빠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듯 아버지가 설계했던 건물이 무너지고 아버지는 형사처벌과



별금을 물어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는 교도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지하에 방 한 칸짜리로 이사를 와야 했다. 엄마는 아빠가 교도소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도 마다 하시지 않고 일을 하셨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부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결과가 우리는 방 두 칸짜리로 이사를 갔고 아버지는 가을에 출소를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의 명예와 지위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가난과 함께 우리가족이 남았을 뿐이다. 아버지가 출소하시던 날 우리 가족은 한 손에는 하얀두부를 가지고 아빠를 맞았다. 커다란 문이 뚫이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고 아버지가 걸어나오셨다.

“아빠”

“여보”

우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동생이 “아빠 두부..... 두부 먹고 다시는 들어가지마.” 아빠는 두부를 드시면서 다시 시작 하자고 하셨다. 아빠는 절망하시지 않았다. 이제 아빠에게는 건축사자격증도 취소되어서 다시 취득하더라도 아빠를 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빠는 몸으로 일을 하셔야 했다. 공사장에 가셨어도 일을 하시고 식당에서도 배달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다. 내가 고등학생이되고 우리나라에는 IMF가 터지고 두 분다 직장을 잃게 되셨다. 난 고등학생이라 레슨도 받아야 했고 돈드는 곳도 많았지만 부모님께서는 말할 수는 없었다. 우리 가족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줄것이 없다는 죄책감으로 늘 술을 드셨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셨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문열어, 빨리 문열어란 말이야.”

“또 약주하셨어요. 일찍 오시지. 병판길도 있는데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하면.....”

“무슨 여자가 말이 많아.”

아빠는 술을 드시고 오는 날에는 엄마를 때리셨고, 엄마는 맞으면 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셨고 아버지의 술버릇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약해만 갔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집을 나가셔서 영원히 돌아오시지 않았다. 지금 나는 길을 걷고 있다. 모든 사람이 둘러 앉아 식사할 시간 나는 야사시한 옷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다.

“우.....오늘 미스김 이쁘다. 술한 잔 따라 봐라.”

나는 이듬해 가을 난 내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 난 밤이 되면 우리 아버지 나이쯤된 사람옆에 앉아 술시중에 노래까지 부르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거울속에 내모습을 보며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진한 화장 속에 내 자신을 숨겨 놓은 듯 했다.

“바보 이게 진정한 니 모습은 아니잖아.”

난 그렇게 돈을 모아 동생을 공부시켰다. 하지만 난 지금도 동생에게 늘 미안하다. 진정한 돈으로 공부를 시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동생을 대학졸업시켰고, 이제 다음주면 내동생은 대기업에 출근을 한다.



“누나, 많이 아프지.”

“아니, 누나는 하나도 안 아파. 누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 동욱이가 잘 커주어서..... 동욱아! 미안하다. 누나가 잘 났으면 깨끗한 돈으로 너 공부 시키고 키웠을 텐데.....”

“누나 아니야. 누나한테는 어떤 무엇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걸.....”

“고맙다. 동욱아, 이렇게 바르게 자라주고 누나를 이해해줘서..... 엄마도 이렇게 의젓하게 큰 동욱이 모습보면 좋아하실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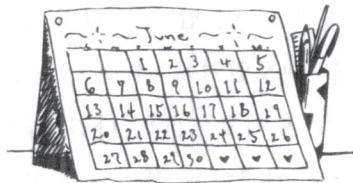
“누나, 난 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다시는 안 올거란걸 내가 저녁 녀에 누나 마중나가서 물으면 누나는 늘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동욱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되면 엄마 오신다고.....” 누나 나 열심히 해서 누나 호강시켜 줄게. 빨리 나아가야 해.

하지만 난 지금 어두운 병실에 혼자 누워있다. 난 이제 얼마살지를 못한다. 지난 몇 년동안 마셔온 술, 담배로 나의 몸은 멍이들고 망가졌지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기에 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아직도 술을 드시고 그러신다면 아버지를 원망했을텐데 이제 마음을 바로 잡고 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난 자랑스럽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아오신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하지만 단 한가지는 이루지 못했다. 엄마.....

엄마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난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엄마의 인생을 찾아나설 수 있다고 다만, 그게 조금 빨랐을 뿐이라고....



오랜만에 햇살이 눈이 부시게 내려 쬐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왔는데..... 행복하다. 햇살이 비치는 날에 눈을 감을 수 있어서.....







## 조약돌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수진

“이젠 통일이 될 건가 봐요.”

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실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부푼 듯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뭘 하겠소……. 또 분명 땅굴이 발견되고, 잠수함이 내려오고, 공작원들이 투입될 게 뻔한데……. 괜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만 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오? 이젠.. 난 믿지 못할 것 같소.”

그렇게 한숨짓는 아버지의 어두운 얼굴에서 왜 재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는지 난 알 수 없었다. 북에 할머니와 큰아버지를 두고 오셨다는 나의 할아버지……. 그는 너무나 완고하시고 곧으신 분이셨다. 언제나 무표정하고 엄하시던 할아버지였지만 북쪽에 있다는 고향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늘 부드러운 표정에 조용한 음성과 우수에 젖은 눈동자로 날 바라보시곤 하셨다.

“그곳엔 말이다, 맑은 냇가가 흐르는데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고기 잡는 건 제일이었다. 거기는 물 속이 환히 보여서 물고기들이 이쪽저쪽 움직이는 게 다 보이거든. 거기서 가재도 잡고 이만한 잉어도 잡고……. 언젠가는 다시 가볼 날이 있겠지……. 그때 할아버지가 고기 잡는걸 보여주마. 아직은 그물을 던질 수 있을 거야. 아니, 그곳에만 가면 내 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 팔이 축 늘어져도 그물은 던질 수 있을 거야……. 네 할머니도 보고, 큰아버지도 보고 말이다. 그래 꼭 그럴 수 있을 테지…….”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할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는 늘상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지겹지 않았던 것은 할아버지의 애잔한 표정 때문이었을까, 아님 옛날부터 키워 온 내 마음 속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러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재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꼭 한번은 밝아보고 죽어야 하는데……. 인선아, 저 께짜을… 꼭 그 냇가에, 냇가에 놓아줘야 한다. 내가 못한 거… 네가 꼭…….”

틈만 나면 할아버지께서 열어보시던 그 낡은 께짜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나는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무서운 할아버지 곁에 가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수진아……. 수진아 이리 가까이 오렴.”

처음 들어보는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나의 맘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내가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구나, 이제 이 할비는 그곳으로 갈 거란다. 맑은 냇가를 지나서 넓은 과수원 뒤에 있는 할비집으로 갈 거란다. 곧 찾아오려무나……. 그렇게 될 거야, 곧 너도 올 수 있을 게다. 기다리고 있으마.”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을 하시고는 힘겹게 손을 내미셨다. 쪼글쪼글한 앙상한 할아버지의 손, 너무 낯설었다.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서 망설임을 느끼던 나는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른 후에야 겨우 그 손을 잡아 질 수가 있었다. 그러고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조용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신 후에 계속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시지 않는다.  
“속상하실 테지.”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가득 실린 소리에서 나는 아버지께서는 또 그 껌의 알 수 없는 물건을 바라보시고 계실 거란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기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그것을 보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이 가는 것을 모르는 걸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발길은 할아버지 방문 앞에 서 있었고 내 손은 방문을 노크를 하고 있었다.

“예, 들어오세요.”

조금의 침묵이 흐른 뒤 들려오는 아버지의 마른 목소리에 나는 움찔한 어깨를 추스리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껌을 달아 장롱 깊은 곳에 밀어두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말했다.

“그 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약간의 주저함을 뒤로한 채 내뱉은 말이 아버지의 바쁘던 손놀림을 멈추게 했다.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싶다고? 좋아, 너도 알 권리가 있지.”

예상외였다. 이렇게 쉽게 보여주시다니, 분명 귀중한 물건일텐데 말이다.

“이건 할아버지의 아주 소중한 유품이기 전에 우리의 고향의 일부분이지, 그러니 무척이나 소중하고 귀한 거란다.”

마치 성스런 종교의식처럼 껌을 여는 아버지의 조심스런 손놀림은 엄숙했다. 하지만 나의 부푼 기대감을 배신한 채 내 눈에 비친 건 평범한 조약돌 몇 개였다.

“내가 다섯 살 때였지, 그때 전쟁이 이미 후반으로 치닫고 있었던 때였어. 남쪽에 터를 잡고 곧 부르겠다며 내려오신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건 나였어. 아무 것도 모르고 어린 날 말이다. 큰형은 어머니를 지켜야했고, 어머니는 고향을 지켜야했지. 다섯 살 때까지 고향의 기억은 우리 과수원의 사과내음과 맑고 시원한 냇가에 그물을 던지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란다.”



아버지의 낮고 작은 목소리가 잠시 멈추자 긴 침묵이 그 소리들을 모두 빨아 마신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이걸 가지고 왔어.”

아버지께서는 께짝에 든 조약돌 중 하나를 들어 내 손에 얹어 놓으며 말했다.

“물 팔매질을 하기 위해 주어 둔 이 돌들이 이 곳에 내려온 후 최초이자 마지막이 된 고향의 물건이 된 거지. 나는 아버지가 잇고 계신 줄 알았다. 내게 뺏어 가신 조약돌을 50년이나 이렇게 보관하시고 계시다니……. 역시, 나의 아버지다. 역시, 너의 할아버지다.”

아버지께서는 두 눈을 지긋이 감으시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는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돌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강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돌이었지만 이것만은 그 어떤 주술이 걸린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신비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엔 할아버지 뵈러 가요.”

나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긋이 누르는 아버지의 두 손을 가만히 잡으면서 말했다고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침부터 더운 바람이 불어와 긴 산행을 준비하는 아버지와 나를 긴장하게 하는 날씨였다. 하지만 이미 정해 놓은 일을 더운 날씨 때문에 미룰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것은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하는 약속이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커다란 강이 시원스레 내다보이는 산꼭대기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잠들어 계셨다.

“여기 경치하나는 좋지요. 아버지께서 산도 좋아하시고, 물도 좋아



하셔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래 어떠세요? 여기서 그곳이 보이세요? 이렇게 높은데 설마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아니면, 벌써 어머니께 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무덤 위에 나 있는 잡초들을 정성스레 뽑으시며 말씀하셨다.

“꼭, 제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게요. 걱정 마시고 편안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무덤 앞에 앉으시며 술잔을 기울이셨다. 그런 쓸쓸한 아버지의 모습에 내가 아버지의 말을 받아 이어갔다.

“저는 꼭 그 냇가에서 그물을 던져볼게요. 가재도 잡아보고 이만한 잉어도 잡아볼게요. 그땐 꼭 옆에 계셔서 알려주셔야 해요. 또, 과수원에 가서 사과도 따 볼게요. 굵직굵직하고 붉은 사과를 따서 맛도 볼게요. 그땐 꼭 옆에 계셔서 같이 드셔야 해요.”

아버지께서는 나의 말이 끝나자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커 버렸군요, 아버지. 이젠 우리의 아픔도 이해할 나이가 됐어요. 꼭 수진이 손을 잡고 찾아가 보

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뒷산에도 올라가 보고, 논두렁도 뛰어보고, 나무도 타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할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높은 산꼭대기의 무덤을 질은 주황색 빛의 노을이 가득 비춰주고 있었고 노을 속에 휘감기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저 하늘 끝뿐만 아니라 아주 멀게 느껴지는 그곳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힘차게, 힘차게 날아올랐다





## 나만의 빛 바랜 단편영화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황금진

성경책 뒤에 놓인 누런 사진. 그 속에서 웃고만 있는 어머니는 까만 테두리에 묶여 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자유롭겠지. 나의 눈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기억 속의 빛 바랜 단편영화를 쫓는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좀 높은 그런 곳에 우리 마을이 있다. 나무 사이로 마구 쏟아 부은 시멘트들이 골목길 모양을 간신히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길은 이리저리 얽혀 작은 집들을 연결해 준다. 그 중에서도 외진 길이 홀로 뻗어있는데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판잣집 하나가 늙은 몸을 돌담에 의지하고 있다. 신문지를 발라놓은 문틈으로 늙은 여자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그 사이로 간간이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막아선다. 그 앞을 지나서는 마을 사람들은 아주 흔한 일이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나간다.

얼마 후. 어린 여자아이의 넘어갈 듯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듣다 못한 동네 아주머니께서는 한마디 흘리시고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신다.

“원……. 뭘 같이 저런다구 아들이 생기남. 예구……. 며느리만 안됐지…….”



늙은 여자의 갈라지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어지자 여자아이의 넘어가는 울음소리도 따라 더 커진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에 판자집은 조금이나마 조용해지는 듯 싶어진다. 곧 문이 열리더니 여자아이를 안은 한 아주머니가 뛰쳐나온다. 신발도 신는 등 마는 등 산 속 어디론가 사라진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가신다. 아주머니는 얼마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 허리가 나간 나무기둥에 기대어 서러운 눈물을 쏟아낸다. 그 속에 안긴 여자아이는 키가 작고 깡말라 몸집이 매우 작아 보인다. 하지만 눈에는 총기가 살아있어 푹푹해 보이며, 눈꼬리도 약간 올라간 것이 고집있어 보인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봐서는 3~4살쯤 되어 보이나 실제로는 6살이나 먹은 여자아이다. 너무 먹지 못하여 성장이 남보다 느린 것이다. 나이에 비하여 일찍 철이든 듯 여자아이는 엄마를 달래는 시늉을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여자아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옆집아주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옆으로 다가서신다. 인기척 소리에 아주머니는 몸을 움츠른다.

“나여... 원 세상에 그렇게 맞아서야...... 그 놈에 아들이 무언지...... 쫓쫓쫓.”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입버릇처럼 혀를 내차시고는 그 동안 망설였던 이야기를 꺼내신다.

“내 아는 용한 점쟁이가 있어. 내 소개시켜 줄 테니 가봐.”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절망의 빛이 서려있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시고는 다시 말문을 여셨



다.

“알어. 내 그 사정 딱한 것 다 아네. 내 사정도 딱하지만 그 쪽 사정이 더 딱한 것 같아서 말야. 내 돈은 받지 말라했으니 그냥 한번 가보기만 해 보구려……. 쫓쫓쫓.”

아주머니는 고맙다는 표시인지 고개를 몇 번 떨구더니 흐느적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선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먼저 일어나 앞장서서 걸어가신다.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그 뒤를 따른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산 속으로 계속 들어가신다. 그 뒤를 따르는 아주머니께서는 처음 가보는 길인지 계속 두리번거리신다. 아주머니 품에 안겨있는 여자아이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잔뜩 겁을 먹고 있다. 자세히 보면 아주머니의 어깨죽지를 꼭 잡고 있는 것이 보인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한참을 더 들어가 햇빛도 들기 어려운 집 앞에 멈추어 서신다. 그래도 손님이 꽤 다니는지 풀숲 사이로 길이 가지런히 나 있었다.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니 짙은 향내음이 코를 찌른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앙상한 뼈가 손짓을 해오고 있다. 마치 울 줄 알았다는 듯이……. 앙상한 뼈의 주인공은 상상외로 젊어 보인다. 선천적으로 곱슬인 것 같은 머리가 까맣게 그을려 있어 더 젊어 보이는 듯 했다. 대략 40~50대로 보이는 그 여자는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점을 보고 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입을 열었다.

“이 마을을 떠나. 고향을 떠나라구. 멀리가. 최대한으로 멀리가. 이곳에 있으면 평생 아들을 못 낳아. 너희 가문에 한이 맺힌 누군가가 막고 있어.”





다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그 여자는 말한다.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잊었는지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한다. 옆집 아주머니의 부축으로 아주머니는 점쟁이 집에서 나와 판잣집으로 간다. 집에서 늙은 여자는 며느리가 배운 게 없어 집밖을 버럭버럭 나간다고 호통이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아주머니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신다. 집은 조용해지고 늙은 여자의 낮은 기침소리만이 가끔씩 고요함을 깨뜨린다. 아주머니 품안에 안긴 여자아이가 얇은 잠에 들자 옆집 아주머니께서 나오신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나오자마자 잘 지내라는 말 몇 마디를 흘리시고 가버리신다. 설잠이 깨어버린 여자아이는 짧은 순간동안이지만 옆집 아주머니의 눈물을 본다. 늙은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고는 지켜보고 있다. 다 떨어져 가는 방문사이를 자세히 보면 여자아이 둘이 더 보인다. 하나는 누워서 손발을 빨고 있고, 또 하나는 기어다닌다. 하지만 기어다니는 품이 너무나 힘이 없다. 눈 밑이 시커먼 것이 얼굴에 병색이 짙다. 그리 크지 않은 눈도 뜨기 힘든지 반만 뜨고 있다. 기어다니는 것도 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여자아이는 뽀뽀거리고 기어다니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힘겹게 기어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보지만 겨우 입에 집어넣는 것이라고는 흠먼지뿐이다.

다음 날, 늙은 여자는 느닷없이 짐을 챙기라고 야단이다. 아주머니는 곧 눈치를 채고 짐을 꾸린다. 짐이라고 해봤자 이불과 옷 몇 벌이 전부다. 짐이 다 챙겨지자 늙은 여자는 아저씨와 앞장서서 걸어



간다. 여자아이의 눈을 통해 늙은 여자의 빈손이 클로즈업된다. 아주머니는 여자아이 하나를 업고 양손 가득 짐을 든다. 아주머니의 눈을 따라 빈집이 클로즈업된다. 텅 비어버린 방안에 이제 기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진 여자아이 하나가 그대로 누워있다. 힘겨운 눈빛이 아주머니를 쫓고있으나 붙잡는 눈빛은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아주머니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자 늙은 여자의 앙칼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늙은 여자의 재촉에 힘겨운 발걸음은 떨어지지만 아주머니의 눈길은 집에서 떨어지질 못한다. 점점 집에서 멀어질수록 아주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떨어진다. 아주머니의 끝없는 눈물에 늙은 여자의 짜증 어린 목소리가 한번 더 갈라진다. 여자아이는 늙은 여자를 한번 노려본다. 여자아이의 눈을 통하여 늙은 여자의 모습이 자세히 비춰진다. 혼자 무얼 그리 먹었는지 디룩디룩 써 살이 걸기에도 힘겨워 보인다. 불에는 욕심주머니가 가득하며 굳게 다문 입술과 올라간 눈이 앙칼스러워 보인다. 화면은 얼굴을 따라 내려가다 포동포동한 손에서 멈춘다. 늙은 여자의 손에 아들만 챙기는 모습이 이중으로 떠오른다. 그 손을 따라 아저씨의 모습이 잠시 비춰지나 곧 화면이 바뀐다. 여자아이에게서 아저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화면은 잠시 여자아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아저씨는 늙은 여자의 품에 안겨 아주머니는 챙겨주지는 않는다. 아니, 한번은 무거운 장독을 드는 아주머니를 도와주려고 했었으나 늙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꿈쩍도 못했었다. 그것이 여자아이에게겐 더 미워 보였다. 화면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현실의 현실로 화면은 돌아가 버린다.



“언니! 정신차려. 뭘 그렇게 생각해?”

“명숙아…….”

명숙이가 부르는 소리에 나의 단편영화는 잠시 필름이 끊긴다. 명숙이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렇게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 웅알거리던 아이. 벌써 나를 위로해 줄만큼 자라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이 아이는 너무 어려 기억하지 못한다. 부유한 이모 밑에서 풍요롭게만 지내온 이 아이는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에 당하셨던 어머니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명숙이는 먼 산만 바라보며 생각에 빠져 있는 내가 걱정되는지 내 걸을 떠나갈 줄 모른다. 그러다 한 늙은 남자를 발견하고는 꼬리치고 다가선다.

“어! 아빠. 식사하셨어요?”

밝은 성격의 명숙이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니, 아빠를 미워해야 할 이유를 명숙이는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명숙이는 날 보고 왜 아빠를 미워하느냐고 묻는다. 그 아인 어려서 이 또한 역시 기억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무정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아니, 그보다도 그가 그 늙은 여자의 아들이라 미워보이는지도 모르겠다. 그 늙은 여자가 죽던 날 나는 광복절이라도 맞이 한 듯 기뻐다. 걸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나는 날 듯이 기뻐했다. 아마 저 남자도 그것을 눈치챘으리라……。 언제나 어리벉벉한 안경 속에다 교활한 눈을 감춘 채 엄마와 나를 감시해 왔었으니깐.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늙은 여자가 죽던 날을……。 낫선 땅에서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스레 죽어가던 날. 나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었다. 그 늙은 여자가 더 고통스럽게 죽게 해 달라고,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프셨던 것만큼 고통스럽게 죽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늙은 여자가 나의 소원대로 고통 속에서 죽던 날.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셨다. 나는 아직도 그런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조금이나마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금 단편영화의 필름을 돌린다.

강을 건너 낯선 땅에 발을 올렸을 때 이상하게 생긴 한 남자를 만난다. 키는 아주머니의 두 배 가량 되고 코는 너무나 커서 꼭 한 대 언어맞은 사람 같다. 피부는 밀대가루를 뿌렸는지 너무 흰데 검은 옷을 입어 너무 대비된다. 머리색도 노란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 말하는 것은 생긴 것보다 더 웃긴다.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운 것처럼 더듬거리며 하는 말이 소아마비에 거린 사람 마냥 혀가 꼬였다. 아주머니는 그 낯선 땅의 낯선 남자의 말을 친절히도 들어준다. 조그마한 아이는 옆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 마냥 좋아한다. 늙은 여자와 아저씨만이 무관심하게 쳐다보지 않는다. 아주머니가 낯선 남자와 너무 오래 이야기하니깐 늙은 여자는 버럭 화를 내며 욕지거리를 한다. 여자아이의 귀를 통해서 그 소리가 코러스 되어 울린다.

“야~! 이 미친년아! 어~ 그래 낯선 곳에 왔다가~! 아는 사람 없다가 벌써 바람피고 눈 돌리는 거냐~!”

낯선 남자는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뒷걸음질을 몇 번하고는 고양이 같은 눈을 동그라니 뜨고 열심히 굴린다. 아주머니는 두 팔을 있



는 힘껏 내저으며 아니라고 한다. 여자아이는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고 온 몸에 힘을 준다. 부르르 떨리는 여자아이의 손에 아저씨의 눈이 스쳐지나간다. 아주머니는 이 낯선 남자가 길을 동행하자는 말을 했다고 열심히 설명한다. 늙은 여자는 처음에는 기를 쓰고 반대를 했다가 낯선 남자의 복을 받는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져 같이 동행한다. 낯선 남자는 가는 길 동안 알아듣지 못 할 말로 노래를 부른다. 너무나 감미롭고 편안한 음절에 모두들의 마음에 잠시 평화가 잦아든다. 아주머니는 잊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된 미소를 머금고는 조금씩 따라 흥얼거린다. 아저씨의 시기 어린 눈빛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핥킨다. 화면은 어느 덧 다 허물어지는 집 한 채에 머무른다. 전에 살던 판잣집과 다른 점이라고는 짚으로 만든 초가집이라는 것뿐이다. 텃밭으로 사용 할 만한 작은 마당이 있어 아주머니는 다시금 미소를 짓는다. 화면은 아저씨의 눈을 따라 낯선 남자에게로 머무른다. 가는 길만 동행하기로 한 낯선 남자가 며칠 밤을 여기서 묶고 가기로 한 것이다. 여자아이는 금방 낯선 남자와 친해져 같이 손을 잡고 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아저씨에게는 불만이다. 낯선 남자는 며칠동안 머무르면서 성경이라는 낯선 책을 가르친다. 늙은 여자는 그저 복 받는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할 뿐이다. 낯선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머니뿐이다. 글을 잘 모르지만 더듬거리며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읽고 기도도 한다. 여자아이는 아주머니의 곁에 앉아 기도하는 시늉을 내보고는 어색함에 혼자서 피식 웃어버리기가 일쑤다. 아저씨는 이 모습을 매일 지켜보고 이를 간다. 늙은 여자도 아저씨가 낯선 남자를 마음



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같이 시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시기를 눈치챈 낯선 남자는 머무른 지 4일째 되는 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는 이른 아침 떠난다. 늙은 여자는 처음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나 얼마 안 있어 복 받는다는 말도 있고 다시 제사를 지낸다.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안 된다고 늙은 여자의 말에 대항을 한다. 늙은 여자는 눈에 흰자가 보일 만치 눈이 돌아가더니 죽으라고 악을 쓴다. 악을 쓰다가 악을 쓰다가 성이 안 차니까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대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복날에 개 잡듯이 쾨다. 머리고, 다리고, 가슴이고, 구분 없이 빗자루가 가는 대로 때린다. 그 모습을 방안 문틈으로 지켜보던 아저씨는 회심의 미소를 짓다가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안절부절 못 한다. 하지만 절대 막아서지는 못한다. 늙은 여자에게 복종하는 개 같이 아저씨는 늙은 여자의 말에만 따르는 것이다. 여자아이, 여자아이만이 이를 으드득 갈다가 매판에 끼어 든다. 여자아이가 끼어 드는 꼴을 보고 늙은 여자는 더 지랄이다.

“이제 이 년들이 쌍으로 덤벼~ 그래 이제 니 것들 눈에는 아래위도 없지? 어디 다시 한 번 쳐봐라 이것들아!!!”

다시 시작되는 매질에 이 번에 두 여자다 맞는다. 여자아이는 아주머니를, 아주머니는 여자아이를 감싸주며 두서없이 날아오는 매질을 용케도 참는다. 온 동네에서는 사람을 잡는다고 난리가 났다. 동네 사람들의 눈이 하나 둘씩 모이고, 수근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늙은 여자는 겨우 손에서 빗자루를 내려놓는다. 아주머니와 여자아이는 온 몸에 멍과 긁힌 자국으로 엉망이다. 둘은 서로 끌어안고 서



럽게 운다.

화면은 며칠 후로 돌아간다. 마침 아주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린다.

“저어 집에 사는 며느리가 미친 여자라면서유?”

“저는 그렇게 안 들었시유~ 그 집에 사는 늙은 여자가 제 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팬 거라던 디유?”

“근다 왜 아이까지 같이 때렸다?”

“아!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지유.”

“겉모습을 본 게롱 정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허~.”

수근덕 거리는 소리에 마당에서 쭈그리고 놀던 여자아이가 이맛살을 찌푸린다. 아주머니께서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냥 가만히 두 눈을 감고만 있다. 여자아이는 감고 있는 아주머니의 두 눈을 바라본다. 그 위에 아주머니가 힘들거나 화가 날 때, 슬플 때면 그렇게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던 화면이 이중으로 떠오른다. 여자아이의 의아해 하는 표정과 함께 그 화면은 서서히 사라진다. 갑자기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온다. 마당에 있던 아주머니와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 마당 입구 쪽을 돌아본다. 화면도 따라서 급하게 뒤로 돌아간다. 늙은 여자가 화가 난 채로 마당에 들어선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주머니에게 신경질을 낸다. 순식간에 조용하던 분위기가 깨어진다. 아주머니가 늙은 여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혼자서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니 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면서 맨 손으로 아주머니를 때린다. 때리면서 아주머니 때문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난리다. 여자아이는 아주머니가 맞을 때마다 온 몸을 부들 부들 떤다. 절대 저 늙은 여자를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속으로 다짐 해가며 이를 간다. 늙은 여자가 아주머니를 때리는 장면 위로 화면이 한 컷씩 한 컷씩 돌아간다. 늙은 여자가 화만 나면 버릇처럼 아주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지나간다.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더니 이내 화면이 새까맣게 변해 버린다.

그 때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잠시 단편영화를 접어두고 두 눈을 꼭 감았다. 언제나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두 눈을 꼭 감아본다. 늙은 여자에 대한 분노를 삼키고 또 삼켜본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두 눈을 감고 무엇을 하셨을지 생각해 본다.

‘……기도……?’

그럴 것이다. 두 눈을 감고 그 낯선 남자에게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속으로 삭혔을 것이다. 하지만 난 여전히…… 그때처럼…… 어머니를 흉내내기에 그치고 만다. 그 어떠한 것도 속으로 삭히지 못한 채……. 어쩌면 난 영원히 어머니를 흉내내기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스스로가 어색하여 피식 웃고 말 것이다.

“많이 힘들겠구나.”

누군가의 음성으로 나의 짧은 망상이 깨어져 버렸다. 뒤돌아보니까만 원피스가 보였다. 어머니의 언니……. 어머니께서 그 아저씨에게 시집을 간 뒤 그 고통을 내일처럼 슬퍼하셨다는 이모…….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 와 보니 텅 빈집에 죽은 큰 아이의 시체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방방곡곡 어머니를 찾아 다니셨다는 이모였다. 그리고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던 이모가 생각한다. 필름은 한참동안 앞으로 감긴다. 잠시 후 낡은 영상이 나의 뜬 눈 위로 펼쳐진다.

낡은 집에는 늙은 향 냄새가 배어 있다. 뿌연 연기는 이미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있다. 화면을 방안으로 옮겨보면 작은 책상에 조촐하게 상이 차려져 있고 향이 피워져 있다. 그 앞으로는 주인 잃은 개마냥 늙은 아저씨 하나가 맥없이 앉아 있다. 여자아이는 이제 많이 자라 있다. 여전히 못 먹어 체구가 작지만 얼굴에는 이제 제법 어린 티를 벗었다. 여자아이의 눈에 비춰진 아주머니는 이제 많이 늙어버렸지만 여전히 예뻐 보인다. 여자아이는 만약 아주머니께서 곱게 늙으셨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우셨을 거라고 한 번 상상해 본다. 아주머니의 얼굴 위로 떠오르는 영상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가름한 얼굴에 미소가 배여 있는 얼굴은 너무나 인자해 보이신다. 하지만 곧 영상은 사라지고 현실이다. 가름해야 할 얼굴이 광대뼈가 푹 붙어져 나왔고 눈 밑은 시커멓게 변했다. 입 주위에 머금은 미소는 너무나 희미해서 보이지 않고 지친 피부는 잔뜩 인상이다. 그래도 여자아이의 눈에는 예뻐 보이기만 한다. 화면을 돌려 마당 모퉁이를 보면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웬 낯선 여자아이 한 명이 더 있다. 고향을 떠날 때 아주머니의 등에 업혀있었던 그 여자아이다. 이제 걸어다닐 만큼 자란 것이다. 먹지 못해 깡



마른 것이 꼭 여자아이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이렇게 집안의 모든 것이 고요하다. 그 어떤 것도 이 적막함을 깨트리려 하지 않는다. 늙은 여자. 늙은 여자만이 이 자리에 없다. 아니, 있긴 있는데 상위에 있는 액자 속에 가두어져 있다. 까만 테두리에 가두어진 채 말 한마디 빵긋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자아이에게서는 크나큰 기쁨이다. 아저씨가 더 이상 힘이 없는 것도 웬지 고소하다. 너무나 조용해 침울하기까지 한 분위기 속에서 여자아이는 소리 없이 웃고 있다. 이때 말없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한 여인이 보인다. 곱게 차려입는 원피스가 그녀의 부유함을 말하고 있었다. 미인형의 얼굴과 인자한 미소는 그 부유함을 더 돋보이게 했다. 호기심 어린 여자아이의 눈을 통하여 여인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자세히 보면 얼굴형과 그 미소가 아주머니와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눈빛도 아주머니가 좀 더 지쳐 보일 뿐 그 여인과 비슷하다. 그 여인은 마당으로 들어와 집안을 둘러본다. 그리고는 점점 고이기 시작하는 눈물을 꽃수가 놓인 수건으로 훔쳐낸다. 잠시 후 뒷마당에서 볼일을 마치신 아주머니께서 마당으로 들어오신다. 그 여인을 본 아주머니께서는 그대로 경직되어 버리신다. 그 여인도 꿈쩍하지 않고 아주머니만 바라본다. 고요함 속에서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연다.

“...언.....니.....”

여자아이는 그제서야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소꿉장난을 하던 꼬마아이는 그 여인에게 저벅저벅 걸어가 원피스를 잡고 무어라 웅알거린다. 방안에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



린 아저씨가 덩수룩한 턱수염을 굵적이며 밖으로 나온다.

“누슈?”

여인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아저씨의 얼굴에 가서 박힌다. 눈에는 점점 살기가 돋기 시작한다. 그 눈의 독기는 오래 저 여자아이가 늙은 여자를 바라보던 때와 흡사하다. 아주머니께서는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여인을 끌고 방으로 들어간다. 여인은 아주머니를 안고는 끝없이 운다. 아저씨는 얼마큼 울어야 그치겠냐며 짜증을 내어본다. 하지만 이내 여인의 살기 띤 눈빛에 잠잠해진다. 여인은 아주머니를 안고는 집으로 가자고 한다. 놀란 아저씨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펼쩍펼쩍 땀다. 여인은 다시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살기를 띤 채로 소리를 지른다.

“이것 보세요! 당신도 눈이 있으면 한번 보라구요. 제 동생의 물골이 어떤지를! 아니 남의 귀한 딸을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겨우 이렇게 만드시려고 제 동생을 데리고 가신 겁니까? 그리고도 당신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저씨는 무안해 하며 고개를 돌려버린다. 여자아이는 아저씨가 늙은 여자가 없어서 힘을 못 쓰는 모습에 속이 다 시원하다. 여인은 아저씨의 허락은 애당초 무시하기로 한 것처럼 어머니를 끌고 나간다. 여자아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여인의 뒤를 따라나선다. 아저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밥그릇을 빼앗긴 강아지 마냥 줄줄 따라 나온다. 아주머니께서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돌아보고는 발길을 멈춘다.



“저……. 그냥 여기에 있을 게요.”

이번엔 아저씨가 회심의 미소를 머금는다. 여자아이와 그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른다. 아주머니께서는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이 흐느낄 뿐 아무런 말이 없다. 아주머니의 완고한 고집으로 여인은 대신 여자아이의 동생을 안고 돌아갔다. 솔직히 여자아이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는다. 그 후 장면은 몇 번이고 바뀌며 그 여인이 여자아이의 동생과 생활비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그림같이 지나간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니?”

“아……. 아무 것도 아니에요.”

“너희 엄마……. 참 고생 많이 하셨는지? 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야. 너희 엄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셨는지. 나두 너희 엄마와 이야기 나누기 전까지만 해두 이해를 못했던 사람 중 하나니깐.”

“……무슨…말씀이세요?”

이모는 슬픈 눈을 한 채, 살짝 입 꼬리만 힘겹게 올리셨다. 머뭇거리시며 흘리신 뜨거운 한숨에는 약간의 물기가 배여 나왔다. 나의 눈은 이모의 입술만 쫓았다. 그 속에 담겨 있을 말에 대한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이모는 눈을 아래로 떨군 채 한참을 계셨다. 방안 가득 메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나의 머리 속에 메아리 되어 울렸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화들짝 놀랐다.



나의 요동이 컸는지 이모도 덩달아 놀라는 듯 했다.

“넌 아마 모를 꺼야……. 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깐……. 엄마가 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그런 아버지랑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난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점점 거세어졌다. 이모의 말에 나는 절대적으로 동의했다. 왜 엄마가 그런 수고를 하셔야 했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난 지금까지라도 당장 어머니를 깨워 물어보고 싶은 감정이었다. 왜 떠날 수도 있었는데 떠나지 않으셨냐고…….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늘어져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이모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다가 다시 입을 여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집안부터 이야기해야겠구나. 마을에서도 꽤 산다던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모함을 받아 일하시던 곳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단다……. 마을을 떠나 품팔이부터 시작하여 구걸까지 하게 된 우리 집은 결국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되었지… 무남이녀였던 우리 집에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너희 엄마뿐이었던단다. 그때 난 공부를 하겠다고 난리였으니깐. 너무 어리석었던 거지. 마침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긴 너희 엄마를 탐내던 남자가 많았던단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께서는 너희 엄마를 돈을 받고 팔다시피 시집을 보내셨단다…….”

사람이 사람을 판다는 것은 이제 어느 소설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이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어머



나의 이야기라니……. 이모의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았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저 어느 비련의 여주인공 이야기처럼 들려와 나의 머릿속을 혼동스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팔 수 있는 거지…… 정말 생계가 어려워지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난 약간의 빈혈을 느끼며 옆에 있는 밥상을 붙잡았다. 이모는 죄의식에 빠져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다.

“너희 엄마가 시집가던 날…….아니 팔려가던 날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더구나. 우리가 걱정 할 까봐…… 애써 웃더구나. 그게 더 가슴 아팠어. 차라리 안 갈려고 때를 썼다면 좋았을 텐데…….오히려 울던 나를 달래구서… 그렇게 떠나더구나. 그 후 나는 너를 낳기전, 그리고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몇 번이고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도망 나오자고 했단다. 하지만…….”

“왜 안 가셨대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지는…….”

나 절규하는 목소리로 이모에게 되물었다. 그리고 난 잠시나마 이모를 원망했다. 이모는 나의 말에 더 가슴 아파 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모는 어쩔 수가 없었다며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길 원하셨다.

“나두 그럴려고 했었던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께서는 너무 완고하게 반대하셨어. 이대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라며……. 그렇게…그렇게 반대를 하시더구나.”

“…….”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속으로 외쳤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이해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 생각했으니까……. 아니, 오히려 이모의 이야기가 내가 엄마를 더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자신을 팔아 넘긴 부모에게 효도를 할 생각을 하난 말이다. 이모는 그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는 또 다른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너두 기억 할 거야. 이사를 간 너희 집에 불쑥 나타나 집에 가자고 했었던 나를……. 그 때 너희 엄마…… 가장 많이 흔들렸었어. 이제 그 지독한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너희 엄마만 고민 끝에 또 거절하셨어. 웬지 아니?”

이모는 나의 대답이 채 나오기도 전에 입을 여셨다.

“자기 때문에 이런 낯선 곳으로 이사왔는데…… 결국 아들은커녕 아이를 못 낳게 되어 버렸으니 그 죄 값을 치러야 된다더구나. 그게 무슨 죄라고…… 그 죄 값으로 지아비를 모셔야 한다더구나.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는 이제 냇두리로 변해 버렸다. 이모는 입을 틀어막으신 채 끙끙 앓으시며 울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다. 그 분 속에서도 맺힌 것이 많은가 보다. 나처럼 어머니의 희생에 가슴이 아픈 거겠지……. 나는 이모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 주었다. 이젠 아예 토끼 눈이 되어버린 이모는 더 울 것이 남았는지 나의 달램에 더 크게 흐느끼셨다.

“네 엄마도…… 그랬었지…… 우는 나를 오히려 달래고… 넌 정말 네 어미를 많이 닮았어.”



내가 '훗' 하고 입 꼬리를 올리자 이모는 지금 웃음이 나오냐며 나무라셨다. 난 절대 어머니를 닮을 수 없다. 그런데 이모가 닮았다고 하니 그냥 웃음이 나왔다. 나를 노려보던 이모는 고개를 떨구셨다. 다시 고개를 드셨을 때에는 크게 한 숨을 머금으셨다. 이모는 볼록해진 입을 벌려 한숨을 내뿜지 않으시고 그대로 삼키셨다. 우리 집 안 내림인 것일까……. 이모도 어머니처럼 속으로 삼키고 계셨다. 이모는 한숨대신 긴 이야기를 뱉으셨다.

“네 엄마가 돌아가기 전……. 잠시 동안이었지만 대화를 했단다.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끝까지 유언 같은 말만 내뱉더구나. 그 말 중에 네 이야기가 제일 많았단다. 막내딸은 내가 잘 말아서 키우겠지만……. 첫째 딸은 내가 죽고 나면 혼자 지낼 거라고……. 그리고는 끝없이 원망만 할거라고… 그러더구나. 자신이 직접 딸아이에게 말을 해야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러니 날 보고 대신 이야기를 전해 달라며 이야기했단다.”

나는 이모가 이야기하는 동안 얼마 남지 않은 단편영화의 끝을 들었다. 이모의 이야기는 영화의 나레이션처럼 간간이 들려왔다. 영화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초가지붕은 이제 다 썩어 까맣게 변해 있다. 걸모습만 봐도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썰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당에도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잡초가 군데군데 자라있다. 나무로 된 울타리도 다 썩어 무너져 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마당인지 통~구분이 안 된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꼭 한번씩 혀를 내차거





나 고개를 흔들며 지나간다. 어두운 방안으로 화면을 돌려보면 푸석하여 꼭 지푸라기 같은 회색 빛 머리가 보인다. 세수는 언제 하였는지 땀물이 주르룩 끼어있다. 하지만 먹은 게 없어 기름기 하나 없는 얼굴이다. 허름한 이불 사이로 나와있는 손을 보면 주름이 주글 주글한 것이 동화책 속에 나오는 마녀 손 같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분이 아주머니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세월 탓에, 고생 탓에 너무 많이 늙어버린 것이다.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아주머니는 이제 할머니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려 보인다. 그 옆에는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다. 이마에는 지렁이 세 마리를 그리고 눈가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로 가죽만 붙은 늙은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 아주머니가 바로 여자아이다. 이제 아주머니라 불려질 만큼 많이 자란 것이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것이다……. 화면은 잠시 방안을 둘러보며 아저씨를 찾는다. 방 구석진 자리에 아저씨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저씨는 여전히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붕어처럼 희뿌연 담배연기만 연신 빼끔거린다. 하지만 화면은 아저씨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뀐다. 화면은 돌아가 이번엔 많이 늙어 버린 여인에게로 가서 머무른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병원에 가자고 웅얼거린다. 아주머니는 바짝 마른 입술을 움직인다. 하지만 소리가 없다. 기침을 해도 마찬가지다. 입은 열고 있지만 소리가 없다. 힘겨운 숨만 빠져 나오고 소리는 나오질 못한다. 폴짝거리는 가슴이 겨우 기침한 것임을 알린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두 여자는 가슴이 탄다. 아저씨도 걱정은 되는지 떨리는 손을 주체 못하고 벌벌 떤다. 아주머니는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며 여인을 부른다. 여인은 무언가를 눈치채고는 여자아이에게 나가라고 한다. 화면이 여자아이를 따라나와 방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여자아이는 방안의 일이 불안한지 애꿎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다. 얼마 후 눈물범벅이 된 여인이 나온다. 여자아이가 방안에 뛰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아주머니가 숨을 거둔 뒤다. 여자아이의 눈앞이 깜깜해져 가며 화면도 깜깜해진다.

단편영화가 끝이 나면서 이모의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린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본론이시다. 이모는 내가 멍하게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 그런 것 같아 보였나보다. 조심스러운 말투가 이야기를 더 느리게 만들었다.

“너무 원망하지 말라더라. 아빠든, 할머니든, 엄마든 간에……. 누구든 간에 원망하지 말라더구나. 아빠는 밭든 곶든 아싸고, 할머니도 밭든 곶든 네 할머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하셨단다. 그리고 엄마가 고생하는 게 언제나 불만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 말썹을 하면서 이젠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단다. 여자의 희생은 강조 당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거다……. 그걸 깨트리면 집안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다……. 그게 힘들 땐 기도를 하라더구나. 너희 엄마가 그러셨다구……. 하나님께선 너의 고통을 아시고 네 지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하셨단다…….”

“…….”

“나도 네 엄마의 말을 듣고 많은 걸 반성하고, 깨달았단다……. 현



대인이라는 핑계로 내 자식을 내팽개치고, 내 남편을 내팽개쳤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단다.”

이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내 감정을 무어라 말 할 수가 없었다. 부끄럽다? 아니,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게 아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다. 가슴속이 몽클해지며 답답하다. 기쁜 일을 맞이할 때 흔히 느끼는 두근거림도 함께 섞여 가슴이 쿵쥔거린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쪽 구석이 죄를 지은 듯한 불안감이 맴돈다. 이때 누군가 나를 흔들며 부른다. 그 소리에 놀라 나의 가슴은 더 쫓는다.

“엄마…… 나 잠 와~!”

나를 부른 것은 이제 막 뛰놀기 시작한 나의 딸이었다……. 5살 어린 나이에 어리광도 많고 탈도 많다. 유치원에서 가끔 딸아이의 사고 때문에 전화가 올 정도니깐……. 그래서 가끔은 너무 미울 때도 있다. 일 때문에 바쁜데 옆에 와서 놀아달라고 떼를 쓸 때면 때려주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 그분은 어떠하셨는가…….

새삼 나의 머릿속에서는 나와 놀아 주시던 어머니가 생각났다. 너무나 지켜줬을 소꿉장난 놀이도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재미있게 같이 해 주셨다. 집안 일로 바쁘실 때에는 집안 일을 같이 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 같이 놀아주셨다. 그 중에서도 난 방 댕기 놀이를 가장 좋아했었다. 걸레를 들고 엉덩이를 높이 치켜들고는 누가 먼저 방을 댕는지 내기하는 게임이었다. 가끔은 반칙도 하고, 어머니 몰래 등에 올라타서는 말을 태워달라며 떼를 쓰던 것이 생



각난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에만 매를 드셨다. 하지만 어리광을 부리는 걸로 신경질을 내진 않으셨다.

나는 그 동안 소홀했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 주었다.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이를 보니 절로 마음이 뿌듯해졌다. 어머니께서도 나를 보며 이러한 기분이셨겠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으니 희생을 달게 받으셨던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것 같았다. 앞으로 계속 살아나간다면 어머니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

나는 잠이 든 아이를 보며 나만의 빛 바랜 단편영화의 끝을 향하여 달린다.





##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한 마음

곡성 고등학교  
1학년 김예정

가을의 빈자리가 유난스럽게 시려오는 계절이다. 뭐가 그리 바쁜 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가을의 끝자락이 안타깝기만 하고 그 끝자락을 놓쳐버린 내 뒤늦은 깨달음은 원망스러울 뿐이다. 여름 내내 푸른 잎사귀들이 습한 바람결에 몸을 무대끼던 소리가 이제는 온모에 소름을 돋게하는 바람이 되어 두터운 외투자락을 향해 농간질을 한다. 찬바람이 들이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가고 그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마음의 문까지 함께 걸어 닫는다. 맹렬한 추위 탓으로 변명을 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오던 나는 올해만큼은 그 성벽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마음이 추운 이들과 함께 그 추위를 나누며 따스함을 찾고픈 건지도 모르겠다.

죽동리에 사는 나는 삼강 원생들을 자주 보는 편이다. 왜 저런 시설이 우리 마을에 있냐며 불평했었고, 그들을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경계하고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살아 왔는데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숨쉬고 사는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질 무렵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학교 축제인 목련제가 끝난 후의 학생회 봉사활동. 해년마다 하는 일이지만 막상 그 날이 되자 이런저런 핑계로 많은 수가 빠졌고 인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하지만 더 뒤로 미룰 수도 없



는 일이었다. 결국 우리는 얼어붙은 마음으로 얼마되지 않는 인원수를 훑어보며 스산한 바람만부는 겨울 들판을 지나 삼강원의 입구에 섰다. 걷는 동안 내내 마음을 다스렸지만 막상 맞서고 나니 쉽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삼강원을 휩싸고 도는 수많은 소문들……. 그 곳 담당자들이 원생들을 마구 구타하며 일을 시킨다는 식의 와전된 소문들을 비롯하여 최근 식중독 사건까지……. 내 발로 그 소문의 중심을 향하긴 했지만 차마 웃는 낮으로 사람들은 대할 순 없을 것 같았다. 우리가 들은 소문 중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삼강원에 들어가면 원생들이 ‘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들어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언니’라는 소리는 매우 귀찮게 영키는 소리였고 웬지 등에 소름이 돋을 만큼 불길한 소리였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 소리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정 사람을 원하는 그들 마음속의 울림이 바로 ‘언니’라는 소리가 되어나오는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때 생전 처음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기쁨과 그들의 야윈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 털어낼 수 없는 찌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묵은 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꼭 붙잡은 손을 가슴에 품고 삼강원 돌레를 몇 바퀴씩 도는 그들의 편안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것이 나의 기우임을 알았다. 같은 길을 계속 돌면서도 그들은 질려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



다. 그랬다. 그들은 주위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나와 함께 몸을 맞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까닭없이 웃어대는 그들에게서 나는 내 동생과 친구와 언니를 보았다.

한참을 그러던 차에 놀이터 한 구석에서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숨어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 나를 경계했는지,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은지 다른 이들과처럼 내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내 주위만 맴돌면서 웃고 있던 한 소녀였다. 나와 비슷한 키에 나처럼 얼굴에 주근깨도 많았지만 나보다 훨씬 예쁘장하게 생긴 귀여운 여자 애였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던 나와 닮은 소녀. 불현 듯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 간단한 일을 매우 많은 생각을 해가며 결정했다. '손잡자'고 계속 줄라대는 내 목소리에 못이긴 척 내민 그의 수줍은 손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한결 더 밝아진 그의 표정에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차가워진 손을 녹히며 돌았던 길을 또 돌았다. 하지만 이제 나도 처음처럼 지겹지 않은 않았다. 끊임없이 편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와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아이에게 다음에 올 때는 꼭 챙겨오겠다는 약속을 했고, 빨간 단풍잎을 따서 서로에게 선물하면서 다음에 다시 볼 때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조각하듯 마음에 새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했고 그 사이 마주친 소



너의 얼굴에서 여태껏 보지 못했던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과 모든이의 미소 속에는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열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자꾸 산 너머로 따라 오라며 손짓하는 태양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삼강원을 등져야만 했다. 이미 헤어짐에 익숙한 그들과 세상의 풍파 속 거짓말에 익숙해진 우리 일행간의 이별은 생각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았다. 그 저 우리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그들. 그들의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그 황량한 들판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의 온도를 나누고 나온 우리 앞에 그 들판은 더 이상 황량한 들판이 아니었다. 바람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는 새 봄이 찾아와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새싹의 온기가 한 가닥 실날이 되어 자리잡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 둘 들어선 실날같은 온기는 더 이상 한 가닥의 실날이 아니라 옛적 모세의 불기둥처럼 변해 갔다. 이제 더 이상 가을의 빈자리가 시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놓쳐 버린 가을의 끝자락과 내 뒤늦은 깨달음이 안타깝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함께 해 영원히 식지 않을 따뜻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이 가을을 보내고 추운 겨울을 맞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열어둔 채 미소지을 수 있다는 이 한 마음이 될 테니.





## 가을이 되면

곡성고등학교  
1학년 박미마

따뜻한 햇볕과 산들바람에 누런 벼들이 출렁이고 있는 들판. 그러나 이런 가을의 여유조차 느끼지 못한 채 우리 집은 바쁜 하루를 보내야했다. 수확의 기쁨과 노동의 만족감을 느끼며 토요일이면 잘 자라준 벼를 베기 위해 고양이 손이라고 빌리고 싶은 마음으로 종종 걸음을 친다.

“미마야, 오늘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야하니깐, 빨리 와라.”

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귓전에 흘리며 뿌연 안개 잔뜩 낀 아침들판을 바라보면

‘오늘도 무더운 태양 속에서 일을 해야겠구나!’

혼자 중얼거린다.

어릴 때는 화창한 주말이 오면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바쁜 농사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나도 가을과 함께 자라고 있나보다.

경운기를 타고 도랑 옆에 있는 큰배미로 갔다. 그 곳에서는 아침 일찍 나오신 엄마 혼자서 갓둑을 베고 계셨다. 낫을 들고 논 주변의 갓둑을 베는데, 까칠까칠한 벼 알갱이가 나의 얼굴을 째어냈다. 벼 포기를 잡고 낫으로 조심히 베는 동안 쨍쨍한 저 해는 약이라도 울리는 듯 계속 용을 쓰고 있었고, 그 위력은 얼굴, 이마, 등에서 흐르는 땀으로 나타났다. 땀 한번 닦고 하늘 한번 보기를 몇 분 후. 그



많은 벼를 모두 베어냈다. 그리고 나서 논 가운데로 들어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벼를 묶어놓은 짚을 낮으로 잘랐다. 처음에는 별로 되지 않아 보여서 빨리 끝내고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베어냈는데,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은 묶어놓은 벼 포기들.

드디어 콤바인이 무려 3시간이나 늦게 오고 나서야 한숨 돌리고 그 후로도 계속되는 벼 일으키기. 세워지지 않은 벼 베기.

‘사스리 사스리. 싸~ 싸~’

베어지는 벼 소리와 함께 마음속에 가득 차 오르는 충만함.

한 가마니, 한 가마니가 늘어날 때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량이 생기겠구나!”

말씀하시는 엄마. 작년에는 주책없이 내리는 가을비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 걱정했는데 올해는 평년작이라 그래도 안심이 되신 모양이다.

콤바인이 벼를 베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일손으로 갖둑을 베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이었는데……. 기계가 일을 하는 동안 나는 태양을 놀렸다.

‘기계는 사람편이야. 네가 아무리 쟁쟁거려도 우리는 지치지 않아.’

하면서. 그리고 머지않아 기계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은 게을러질 거라는 생각도 함께.

콤바인이 지나가고 우리가 논에서 떠날 때는 해는 기울어 있었다. 그리고 텅 빈 논바닥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가마니를 싣고 가



는 경운기의 뒷모습은 나에게 뿌듯함이 남겨져 있었다. 털털거리며  
가마니를 싣고 가는 경운기 뒤를 따라가면서 벼 포기에서 나는 가  
을의 냄새에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가을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같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 내 삶 속의 작은 행복

곡성고등학교  
2학년 서지희

차창 밖으로 부는 바람소리가 매섭게 들려오는 계절이 다가왔다. 온몸이 뽁뽁 얼며 ‘호호’ 하며 하얀 입김을 내는 겨울이 다가온 것이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머리를 감고 밖에 나갔더니 머리가 얼어서리가 생기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는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4년 전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 아마도 지금과 같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집은 청계동이란 곳으로 이사를 갔다.

곡성에 살면서 ‘청계동’이란 곳은 처음 듣는 그런 곳이었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개발되기 전에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으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주위에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처음에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라는 전력에만 힘입어 생활하다 보니 저녁에 발전기를 꺼 버리면 산 속의 우리 집은 온통 암흑으로 변해 버린다. 그 암흑 속에서 매일 밤 울던 내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래도 지금 생각 해 보면 우리는 양호한 편이었던 것 같다. 동생이랑 나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아빠는 답답하면 차를 몰고 나갈 수



있지만 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엄마는 하루종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것이다.

개발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그곳에서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같이 힘겨운 일이었다. 하루에 겨우 단 한 대의 차가 지나갈 정도로 한적한 곳에서 하루 온종일 계셨을 엄마 모습이 상상된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이런 말을 다 하셨을까? ‘아무나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 한마디만 건네주기만 한다면 물이며 밥이며 모든 걸 다 주었을 텐데…….’ 나는 아직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청계동에서 살기 시작한지 3,4개월 동안은 사람이 제일 그리웠다고 엄마는 말씀하신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 만큼이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었다.

도로가 포장되고, 전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말 그대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었다. 조금씩 조금씩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자 청계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차츰 이곳을 알게 되고, 강변을 따라 멋있는 풍경이 있는 이곳은 데이트 코스로 유명해져 갔다. 따라서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차츰 이곳을 찾기 시작하였다.

우리 집 앞에는 섬진강의 깨끗한 물이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져 나무가 많아 신선한 공기를 매일 마실 수 있으며, 차를 타고 학교 가는 길이면 꼭 한번은 동물을 만나 볼 수 있다. 집 옆에는 계곡의 맑은 물이 흘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처음에는 이곳을 모르던 사람도 한번 왔다 가



면 잇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되고 만다.

이러한 곳이기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여름이 오면 차를 댈 곳이 없어 돌아가는 차들이 많을 정도로 도로 변에는 양쪽으로 수 km나 되는 거리를 차로 가득 메우곤 했다. 청계동에 이렇게 붐비는 차들 속에 힘들게 뛰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다.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의 차만으로도 우리 집 주차장은 물론 앞 도로까지 줄을 잇기 때문이다.

이 섬진강 강변에 이렇게 개발의 변화가 올 것을 예상이나 한 듯이 아빠가 이 곳에서 식당을 한번 잘 해보자고……. 많은 생각 끝에 청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식당을 시작한 것이다.

여름이면 나는 흑구가 되고 만다. 방학동안에 집에서 식당 일을 돕기 때문이다. 방학 동안 내내 어디 한번 나가 보지 못하고 청계동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지낸다.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많아도 이제까지 일 하던 사람이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더 바쁘고 일에 두서가 없어지며 내 몫이 누군가에게 더 큰짐이 되는 걸 알기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잠시나마 일을 해 보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름이면 일에 찌들어 몸과 마음이 다 미약해 버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더 잘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종일 서 있는 까닭에 다리며 허리가 아파서 참지 못하고 끝내



는 주방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엄마. 그러면서도 가스레인지 한 모  
통이를 잡으며 국자를 놓지 못하고 주방에서 계속 머무르는 엄마를  
보면서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식당에 얽매어 어디 한번 마음 편  
히 다녀보지 못한 엄마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아마도 청계동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엄마가 밖에 외출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빠 또한 우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3년 동안 아침저녁  
으로 우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오고……. 버스가 다니  
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아빠가 데려다 주곤 한다. 처음에는 너무 당연  
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닌 매일……. 또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꼭 아  
빠를 동반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피곤한 몸으로도 웃으며 데려다 주  
시는 아빠께 너무나 죄송스럽다.

아빠와 나……. 부녀의 관계는 다른 집에서 부러워할 만큼 좀 특별  
하다. 아빠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 다른 집은 아빠랑 말도 그  
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아빠랑 매일 같이 이야기하  
고 장난도 치며 아빠와 나의 웃음소리가 끊이는 날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 아빠는 그야말로 멋쟁이이시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  
이며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지 또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먼  
저 나에게로 한 걸음 다가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해결  
책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신다. 이런 아빠의 모습에 나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딸이 되고 만다.

그래서인지 난 엄마보다 아빠가 더 편하다. 적어도 하루에 두 번은 아빠와의 데이트시간을 갖는다. 10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에 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또 고3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등 아빠와의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지금 비로소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값지고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많은 효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니 말이다. 지금으로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다.

고3의 문턱에서 난 지금 저 멀리 있는 고지를 향해서 출발하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멋진 항해술로 미래를 향하는 배에 몸을 실으려고 한다. 밝은 미래를 개척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효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는 큰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아래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부모님과 함께 펼치고자 한다.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고 나는 맹세한다.





## 날개 잃은 천사의 세상보기

곡성고등학교  
2학년 김미연

오늘 아침 저의 기분은 별로입니다. 아침부터 어두워보이는 아빠의 얼굴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더 큰 이유는 동생 때문에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오늘도 늦잠을 잤습니다. 우리를 놓아두고 무심하게 떠나가 버리는 버스를 보며……. 미운 동생, 항상 동생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을 대신해 제가 다 혼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나 둘씩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동생과 저는 거실에 놓인 TV를 놓고 보이지 않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취향이 다른 탓에 리모콘을 가지고 벌이는 전쟁이지요. 그런데, 아빠께서 나오셨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뭐하는 거냐며 혼내실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께서는 컵에 약간의 술을 따르시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빠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버스를 놓치게 만든 미운 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동생이 어렸을 적 날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동생이 눈이 아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토요일 밤이었고, 일요일은 병원이 쉬니까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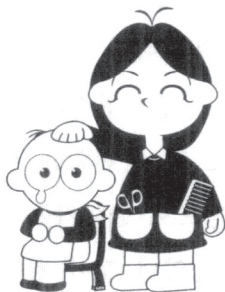
원에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동생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부터 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서울 인근의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그곳에서 내려진 병명은 눈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동생을 품에 안으시고 엉엉 우셨답니다. 소식을 듣게 된 동네 분들도 모두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동생을 수술시킬 수도 있었지만, 너무 어린 동생을 수술 시키기가 위험하고 겁이 나서 그냥 지금까지 왔다고 부모님은 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께서는 약간 붉어진 눈시울에 사랑을 가득 담아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엄마랑 아빠는 동생이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 주실 거다' 라고……. 누나들이 동생을 잘 챙겨주길 바라신다는 아빠의 말씀에 눈물이 울컥 솟아 나올 것만 같아서 졸리다며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이 불쌍합니다. 동생이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생은 친구들로부터 눈이 이상하다고 놀림을 받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동생에게 그런 형편없는 애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저도 방으로 들어가 울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생이 보지 못하는 나머지 반쪽마저도 저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동생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순간에는 한쪽



눈만을 감으면 그만이니깐요.

저는 동생을 사랑합니다. 천사가 날개를 잃어버렸다고 천사가 아닌가요? 제 동생도 똑같아요. 은빛의 눈동자,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인 그 눈동자를 가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평범한 사춘기 소년들처럼 여드름도 빼죽빼죽 나기 시작하고 변성기 때문에 목소리도 걸걸 합니다. 제 동생은 날개 잃은 천사입니다. 우리는 이 천사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저부터서……. 마음 약한 저는 오늘도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이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생을 지켜주세요.”라고…….





# 아, 어머니

극성 고등학교  
2학년 이지영

“지영아, 우리 딸기 맛 좀 보렴.”

두 손에 정성스레 포개어진 빠알갈고 탐스러운 딸기를 내 앞에 내어 보이며 곱게 미소 지으시는 어머니는, 몇 개월의 그 피땀으로 일구어낸 결실을 발견하는 순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딸 생각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길라 그렇게도 정성껏 포개어 오심이 틀림 없었다.

“벌써 익었어요? 맛있겠다!”

한 입 베어 문 그 작은 열매가 그날 따라 한없이 달고 부드럽게만 느껴졌던 건 단지 오랜만에 맛보는 딸기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혀 끝을 감아오는 달짝지근한 과즙과 눈 앞을 곱게 채색하는 어머니의 흐뭇한 미소... 그날 난 그 형용할 수 없는 딸기의 달콤함에 젖어 그만 울컥 눈물이 솟을 뻔 하였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어머니밖에 몰랐다는 내게 있어 그 이름 석자는 언제나 눈물겨움이었다. 함께 할 시간이 적어서였던 것도,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해서였던 것도 아니건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를 생각하노라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그 사랑이 늘 고프기만 하였다. 내 욕심이 너무 과한 탓일까?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나는, 때때로 그 사랑에 배부른 투정까지 부러가며 어머니를 힘겹게 만들기도 하였다. 고프다고 고프다고 보채 대는 딸에게



한없이 퍼주고 싶으시다는 어머니는 단 한번도 싫은 내색 없이 어르고 달래주실 뿐이었고, 나는 그 고운 미간에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애잔함을 어루만지며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목 메이게 불러보고 또 물러보았다. 그 검은 술 사이로 드문드문 속기 시작한 흰 가닥을 찾아내며 가슴아픈 미소를 그려보는 어린 딸을... 알고 계실까?

“올해 딸기 값이 좋아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 딸 맛있는 것 더 많이 사주지....”

고된 일로 푸석해진 얼굴 위로 한숨어린 바램이 또 하나의 곱을 패이게 하고...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꼭 호강시켜 드릴 게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넓게 번졌다. 바라보는 내 얼굴 위에도 환한 미소를 덧칠해 주시면서... 올해 농사는 풍작이길 기도하는 내 단 하나의 바램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수심의 빛이 영영 사라지는 것, 그 것 뿐이었다.

이따금씩 그 피곤한 어깨에 손이라도 감아보려 할때면, 행여라도 딸의 팔이 아플까 그만두라 하신다. 그 것조차도 마음껏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은 모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지친 몸을 누이신 곁에 앉아 가만히 거친 손을 부여볼 뿐이다, 아프시면 안돼요, 아프시면 안돼요... 그저 깊은 단잠에 빠져 계실 뿐이었다.

찬바람에 몸서리 쳐지는 이 겨울 날이 이제는 조금은 따스하게 느껴지는건, 지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실 그 분



이 계시기 때문이다. 바라고 또 바래도 끝이 없을 그 마음에, 그 인  
자한 얼굴 가득 어리고 서린 잔주름에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웃음  
을 걸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이 몇 백배는 더 행복하련만...

“나도 이제 늙었나보다.”

알고 계실까? 거울에 비친 쓸쓸한 얼굴조차도 내겐 세상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 줄 두 줄 새기기 시  
작한 주름살 한 골 한 골까지도 너무나 소중한 가슴이 시린다는 것  
을... 오늘 밤에는 그 이불 밑으로 작은 손을 밀어 넣어 따스한 그  
팔 다리를 조심스레 주물러 봐야겠다. 따스한 사랑이 손길 하나 하  
나에까지 고이 묻어날 수 있도록... 비할 수 없이 작은 사랑이지마는  
내 이 간절한 마음이 조금만이라고 전해질 수 있도록... 벌써부터 가  
슴 속이 벅차오름을 느낀다.

“자, 보세요. 이 가슴을 열어 보세요. 이렇게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  
어요. 이렇게나 당신을... 아아..., 어머니... ”





## “엄마, 사랑해요.”

곡성고등학교  
3학년 박소라

“엄마, 편하게 주무세요.”

오늘도 엄마께선 책을 보시다가 꾸벅꾸벅 졸고 계신다. 편하게 주무시라고 해도 엄마께선

“우리 딸이 고3이라고 힘들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편하게 자겠니.”

하시며 억지로 감기는 눈을 뜨고 책을 보신다. 엄마께서 잠과 싸워서 못 이기시는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다. 피곤하실 거다. 추운데 가게에서 10원 짜리 한 개라도 더 팔아보려고, 하나뿐인 딸 남들 앞에서 기죽이지 않으려고, 어제든 오늘도 너무너무 힘이 드셨을 거다.

아빠 돌아가셨다. 4년 전쯤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거기에다 불치병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서 억지로 우겨서 나오셨다.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그건 바로 나 때문이다. 하나뿐인 딸 곁에서 지내고 싶으셨다는 거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아빠가 불치병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돌아오신 아빠가 나에게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저 갑자기 변한 아빠가 밍기만 했다. 그렇게 무심히도 아빠 엄마와 나만 남겨두고 떠나셨다.

세월이 흘러 나는 고3이 되었다. 누구든지 고3 수험생은 걱정도 되





고 막막하기도 해서 적지 않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매일 내 옆에서 잠과 싸우며 억지로 책을 보시는 엄마를 뵈며 남들한테 모진 소리 들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걸 뵈며 엄마가 그러시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나의 짜증은 늘어만 갔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엄마, 나 공부 못 하는 거 알잖아! 나 대학 못 갈지도 몰라.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모진 소리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말아!”

이러면서 짜증을 냈다.

사실은 친척들마저도 엄마께 모진 소리하는 걸 우연히 들었었다. 그걸 듣고 엄마는 앓아 누우셨던걸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 보았을 땐 엄마는 그냥 감기라고 하셨고 나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으실 엄마인데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너무 미웠다.

모지 말을 하고 난 새벽이면 엄마는 잠을 못 주무시고 뒤척뒤척 하신다. 그래서 생각했다. 공부 한번 해보자고…….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일 거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았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어느 덧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았다. 그런데 점수가 너무 낮았다. 집에 돌아와 엄마를 뵈니 눈물이 났다. 엄마 품에 기대어

“엄마, 죄송해요!”

라며 한참을 울었다.



“괜찮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울지마!”

엄마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순간 그 동안 참았던 말이 나왔다.

“엄마, 사랑해요.”

난생 처음으로 하는 말이어서 쑥스러웠지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며 활짝 웃어주셨다.

어느 덧 시험이 끝났고 이제는 억지로 잠과 싸우는 엄마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고생하신 엄마께 엄마 맘에 차는 딸이 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엄마가 더 잘 아실 거다.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엄마가 나에게 주는 그 큰사랑의 의미를……. 근데 엄마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파 오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웬지 모르게 오늘은 엄마께 “사랑해요”라고 말해 보고싶다.





## 아버지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한지연

너는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바치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든 효녀 심청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를 끝까지 모셔야한다.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를 키워야하는 무거운 책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책임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 그 말을 모른 척 할 때가 많았다. 세상에 지쳐버린 눈으로 날 하염없이 쳐다보던 저 눈빛, 그 뜨거운 눈빛에 나는 울고싶지 않았다. 언제나 밝고 아름답게 힘차게 살려고 노력해왔다. 아버지의 상처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에 나는 너무나 나쁜 딸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저 먼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릴 때부터 울고 그림을 분명하게 하기를 좋아하던 나는 나의 잘못에 꾸짖는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다. 그래서 항상 저 애는 못된 아이라며 손가락질을 받는 꼬마악마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나에게 한번도 '매'를 들지 않으셨다. 내가 맞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제치고 아버지가 대신 맞았고 오히려 매맞은 자국을 어루만져 주시며 약을 발라주셨다. 명든 부위는 아버지의 손길을 거쳐 파란 자국이 빨갱게 변해갔다. 딸을 너무 사랑해서 남들한테 맞고있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고 계실 수 없으셨나보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딸은 너무나 착한 딸이라며 나는 이 아이를 잘 안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항상 내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난 무척 좋았고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았다. 누군가 어느 누구를 존경하느



냐고 묻는다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한다. 잘난 아빠가 아닌,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아 주는 아빠의 한없는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라면을 공짜로 타기 위해 아빠와 어느 고등학교에서 함께 줄서던 날, 그 날은 얼음이 퐁퐁 언 새빨간 고사리가 아파할 만큼 추운 날이었다. 라면을 타기 위해 아빠와 나는 운동장 가운데를 정신없이 뛰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밀려 한쪽방향으로 넘어졌다. 아빠는 넘어지려는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을 당당히 팔로 밀치셨다. 잘못해 아빠의 팔이 다쳤다. 하지만 아빠는 살며시 웃으셨다. 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아픔을 참을 수 있다고……. 얼마 전, 아빠의 눈물을 보게 되었다. 얼큰한 막걸리를 걸친 채, 꿀떡꿀떡 침을 삼키시던 아빠의 모습, 외로움을 술 한잔에 담겨보는 아빠의 모습에 너무나 가슴아팠다. 내가 좀 더 아빠에게 신경 썼더라면 아빠는 이렇게 외로움의 추위에 떨고 계시지도 않았을 텐데……. 아빠의 한없는 사랑만큼 나는 그것에 1/2만큼도 아빠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새 아빠의 어깨만치 오는 훌쩍 큰 키를 보시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우리 딸이 이제 다 컸네… 컷가에 들려오는 이 말이 싫었다. 항상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이다. 이른 새벽, 찬밥에 물을 말아먹고 가시는 아빠를 보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밥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마음과는 너무도 다르게 아빠에게 투정만 했다. 맛있는 반찬과 따뜻한 밥으로 아침을 먹고 가고싶다며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국물을 끓여주시던 아빠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쁜



아이다. 하지만, 아빠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꼬마 악마이다. 텅 빈집에 홀로 들어와야 하는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아빠의 가슴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아빠가 나에게 주신 사랑만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아빠 앞에 우뚝 서고 싶은 딸의 마음을 아빠가 알아주시길 기도해본다. 아빠! 저 다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세상에 지쳐 계시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희망이 저 뿐이라는 걸... 아빠!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실래요? 기다리다 지치실 줄 알아요. 하지만 반가운 경적소리를 내는 기차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아름답게 달려 저보다 더 아픈 영혼들을 찾아 아빠가 세상에 입은 상처만큼 그들의 아픔을 깨끗이 닦게 해 주는 사람이 될 꺼예요. 아빠! 그때까지 지켜봐 주실 거죠?





## 초등부 수상현황

### 대상(1명)

송다은(여수 자산초, 4년, 산문)

### 금상(1명)

서은애(입면초, 5년, 산문)

### 은상((1명)

한선영(남원 주생초, 6년, 산문)

### 동상(5명)

최영목(담양 무정동초, 5년, 산문)

고우리(여수 자산초, 6년, 운문)

최윤정(검면초 마삼분교, 6년, 운문)

김이슬(검면초 마삼분교, 4년, 운문)

송현근(담양 무정초, 3년, 운문)

이하나(곡성서초 5년, 운문)

### 장려상(5명)

곽광휘(곡성서초, 3년, 산문)

윤선(창립초, 4년, 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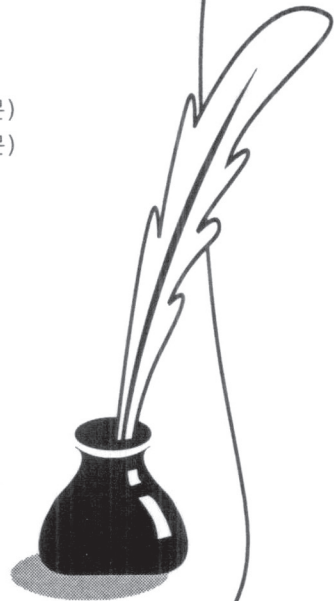
신성미(구례 중동초, 6년, 산문)

이보아(담양 무정동초, 3년, 운문)

문형진(검면초, 6년, 산문)

### 특별상

탁은천 (곡성서초, 5년, 운문)





## 중등부 수상현황

### 대상(1명)

배은성(곡성여중, 2년, 산문)

### 은상(1명)

허난설(옥과중, 3년, 산문)

### 동상(5명)

장영신(남원 금지중, 1년, 산문)

김미화(옥산중, 2년, 산문)

윤미애(곡성여중, 2년, 산문)

김혜선(곡성여중, 2년, 운문)

한소영(옥과중, 2년, 운문)

### 장려상(5명)

이한나(곡성여중, 1년, 산문)

신연순(곡성여중, 2년, 산문)

정지영(입면중, 2년, 산문)

김규태(곡성중, 2년, 산문)

오준환(곡성중, 2년, 산문)





## 고등부 수상현황

### 대상(1명)

이수진(김해 중앙여고, 2년, 산문)

### 금상(1명)

김우영(김해 중앙여고, 3년, 운문)

### 은상(1명)

한지연(광주 경신여고, 2년, 산문)

### 동상(4명)

김혜정(곡성고, 1년, 산문)

백경숙(장흥고, 2년, 운문)

김향남(김해 중앙여고, 1년, 산문)

박미마(곡성고, 1년, 산문)

### 장려상(5명)

조윤경(김해 중앙여고 3년, 산문)

김미연(곡성고, 2년, 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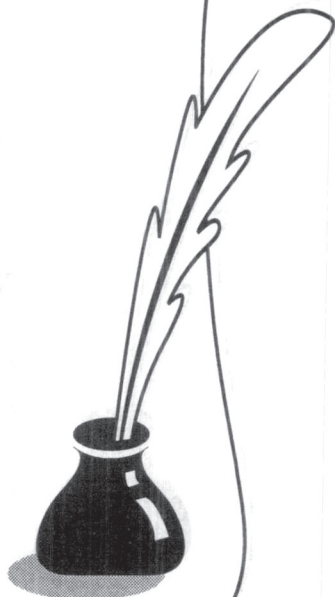
서지희(곡성고, 2년, 산문)

박소라(곡성고, 3년, 산문)

이지영(곡성고, 2년, 산문)

### 특별상

황금진(김해 중앙여고, 3년, 산문)





2000년 제1회  
호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 공모전  
수상작

---

---

2001년 3월 25일 인쇄

2001년 3월 29일 발행

발행인 : 양병하

편집 : 조준원

발행처 : 곡성문화원

인쇄처 : 대한교육사

※ 이 책은 국비 및 지방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

비매품